朝鮮日報
夕刊 三十日(月)
本紙朝夕刊十面

社說

西歐五國空軍로카르노案

一

外電에 依하면 英佛伊三國間에 空軍로카르노協約案에 關하야 外交折衝이 再燃되고 잇다。

여기 이른바 空軍로카르노案은 (一)一九二五年의 로카르노條約의 補强工作이오、(二)지난 二月三日의 英佛倫敦宣言의 條約化요、(三)最近 伊에紛爭解決을 爲하야서의 英國의 對伊牽制策 又는 對伊强硬策遂行의 基礎工作이요、(四)將來할 戰爭에 잇서서의 空軍의 威力에 對한 認識을 强化하는것이라는 네가지 重大한 意義를 가진것으로 볼것이다。그러고 그所謂、空軍로카르노案의 骨子는 此를 要컨대 (一)英獨佛伊白 五國은 空軍으로 서로 他國을 侵襲치 아니한다。(二)五國中에 어느一國이 本旨에 違反하야 他締約國을 侵襲할時에는 나머지 四國空軍은 被侵國의 便이 되여 違約國을 膺懲한다。를 그 內容으로 한것이다。

二

三月三日의 英佛倫敦宣言은 여러가지 複雜한 意味를 가진것이나 此를 要컨대 그根本精神은 佛蘭西가 英國을 誘引하야 對獨包圍陣을 結成하려는 意圖의 表現이엇다。即、英國이 가장 무서워하는 空軍來侵의 근심을 덜려주기 爲하야 五國間의 空軍協約案을 成立시키는 代價으로 英國은(一)一月七日의 佛伊協定中에 잇는 墺太利獨立保全에 關한 協約에 參加하며、(二)英佛兩國은 벨사유條約의 一方的廢棄를 敢行하는 나라가 잇스면 何國이 此를 敢行하던지 이것을 許치 아니 한다。의 두가지 일을 佛蘭西를 爲해서 協力해 주겟다는것이 그 要旨이엿든것이다。

그러고、(一)은 말하면 獨逸의 南下防止策이오、(二)는 말하면 獨逸의 再軍備防止策이다。此二策에 英國이 加擔해준다면 佛蘭西는 그代身에 空軍로카르노案의 成立에 依하야 英國을 大陸西國의 空軍脅威로부터 安堵케할 方途를 講究해 준다는것이엇다。

三

英國은 獨逸의 空軍을 무서워함은 勿論이나、獨逸의 空軍이 아직 微弱한 態狀에 잇는 現在에 잇서서는 獨逸空軍보다 佛蘭西의 空軍을 더 무서워하는것이다。故로 空軍로카르노案은 此를 佛蘭西의 立場으로 본다면 英國에對한 大讓步다。即、(一)은 此案에 依하야 佛蘭西가 그優秀한 空軍으로써 英國을 脅威치 아니한다。(二)五國中의 어느一國이 英國을 空襲할時에는 佛蘭西는 그空軍으로써 英國을 爲하야 動員한다는 의 두가지를 英國을 爲하야 保障하는것이기때문이다。이러케보아 올때에 우리는 이러한 意味를 가진 空軍로카르노案이 倫敦宣言後約十個月을 經過한 今日에 와서 再燃하는 意味를 알수가 잇다。英國은 只今 對伊强硬策을 遂行하기爲하야 地中海沿岸諸國即、佛蘭西、土耳其、希臘、유고슬라비아의 四國으로 부터 『伊太利가 英國에武力攻擊을 加할境遇에 이四國은 海空兩方面에 亘하야 軍事的協力을 英國에 與하겟다。』는 承諾을 바덧다。그런데、이제 한가지 英國의 要望는 一旦、有事時에 잇서서의 獨逸의 向背다。故로 獨逸을 마저誘引하야 自己便으로 만드는 미끼로 空軍로카르노案을 끄집어 내는것이 第一上策으로 알고 그런것이다。

四

그러고、空軍로카르노案과 墺太利獨立保全案及 平和條約一方的廢棄反對는 서로 關聯性을 가진것이고 본즉 空軍로카르노案이 條約化하는 날이면 墺太利獨立保全과 平和條約의 一方的廢棄反對에 對해서도 어떠한 形式으로 保障될것이니까、이것은 佛蘭西를 爲해서도 元來부터 希望하는일이다。그러나、이것을 獨逸의 立場으로보면 이것은 獨逸이 그西部國境에 잇서서 白耳義及佛蘭西를 侵略치안켓다고 約한 一九二五年의 로카르노條約의 再確認이 되는것이니까、그것은 두말할것도업시 自縛自縛이 되다。그야말로 傳하는바와가치 (一)獨逸政府에 對하야 大陸各國의 空軍보다도 優秀한空軍을 承認하며(二)舊獨逸領植民地를 獨逸政府에 復歸시키며、(三)벨사유條約의 大戰責任條項을 廢棄하는等의 代價이 잇다면 몰라도 그러치 아니하면은 獨逸의 應諾할바가 못된다。더구나 英佛그他關係國이 이런條件을 드러줄理가업고、또 獨逸로보면 伊에戰爭을 利用하야 機會만 잇스면 한목보려는 생각을 가젓스니까 이 空軍案의成立은 大概困難할것으로 볼것이다。그러나 되다면 伊太利에 對한 大打擊일것이다。

中國諸問題에對해 軍部態度極硬化

南京政府는 全然度外視하고 北中當局과提携畫策

【東京電話電通】南京政府의 幣制改革、英中借款、北中自治政權의 樹立等을 契機로 惹起한日中間의 感情的疎隔은 汪兆銘、唐有壬兩氏의 遭難事件、全中에 亘한 學生運動의 排日運動으로 다시 激化되는感이잇는데 陸軍中央部에서도 事態의 推移를 極히 重視中인바 新行政院長으로 日中國交調整의 前面에 進出한 蔣介石氏、外交部長張群氏에게도 目下의 情勢로는 何等 期待할수업는것이 明瞭하야 軍部의國民政府에 對한 失望은 이제 最後的이되엿슴으로 二十八日 丁中國代理大使로부터 重光次官을 通하야 日中國交調整會議의 提唱等에 對해서는 冷笑的態度를 가지고잇서서 今後 軍部의 對中態度는 加速度的으로 硬化할것으로 보인다

一、排日貨의 嚴重한 取締를即時 實行하라

一、防共을爲한 軍事的提携

一、滿洲國을 即時 承認하라

는 所謂關係五省會議의 決定事項의 急速한 應諾을 要求하는 것은 勿論 北中 에서는 可及的 速히 駐屯軍의 編制를 擴充하야 防共提携에 贊成한 宋哲元、殷汝耕의 北中兩新政府의 協力이 確立되엿슴에 北中政府의 滿洲國承認을 求하야 全然 南京政府를 度外視하고 日滿北中間의 完全한 經濟的、軍事的連繫를 實現시키려는 意向을가지고잇다

外蒙國境紛爭에 國府態度決定

日蘇紛爭에 誘入되지안코 中國의宗主權回復企圖

【上海卅日發電通】漸次尖銳化하게하는 滿洲國外蒙間의 紛爭에 對하야 國民政府는 至大한 關心을가지고 各方面의 情報機關을 驅使하야 迅速報道를 接受하기에 努力하고잇는데 二十九日夜國民政府最高軍事秘密會議에서 左와如히 以夷征夷의 三原則을 決定하엿다고傳한다

一、外蒙과 滿洲國國境의 局地的紛爭은 漸次擴大될 模樣인데 中國으로서는 此를 日蘇의全面的紛爭에까지 發展케하기爲하야 모든努力을 繼續할것

二、日蘇間의 紛爭이 擴大되드라도 中國은 어느一國에나加擔치안코 戰亂의 渦中에 휩슬려들것을 避할것

三、日蘇紛爭에 進出하야 中國은 外蒙의 宗主權을 回復할것

即一九二四年六月 外蒙共和國獨立에 當하야 國民政府는莫斯科政府에 對하야 一切의交涉을 保留하여왓슴으로 當然宗主權을 回復할수잇다

皇后陛下 御產褥를거두시다

【東京電話聯合】皇后陛下께압서는 義宮殿下 御誕生後오래동안 御靜養하압시든바御經過도 極히 御順調이시엇슴으로 三十日午前十時 御三十三日만에 御產褥를 거두시엇다 正午부터는 天皇皇后兩陛下 皇太子殿下 順宮殿下 御同席하시와 御祝膳을 바드압시엇다고 承聞된다

三十一日의 宮中諸御儀

【東京電話電通】三十一日午後二時五十分 宮中에서는 御定例의 諸御儀가 擧行되실터이다 儀式은 節折의 儀로부터 비롯하야 宮中鳳凰間에 純白의小直衣를 御着用하압신 天皇陛下 出御、諸員參列 三條掌典長奉仕、嚴肅히 擧行될터이오 다음大祓의儀는 賢所 大前에서又除夜祭는 午後五時부터擧行되실터이다

海軍軍縮會議와그前途

테임쓰의河水는 漢江의물과相通

(卅九) 雲崗生

余는 以上、三十八回에 亘하야 理解 못하는 사람의 눈으로보면 實로 支離를 感하리만치 한問題를 가지고 張皇한說述을 繼續해 와다。그러나 여기는 余로서 보는 重大한 理由가 잇기때문이다。理由의 하나는 列國의 海軍軍備는 그것을 單純히 軍備로만 볼것이 아니라、이에 各國의 國策遂行의 機關으로 볼것이라는 一點이오、理由의 둘재는 一見에 우리와는 何等의 關係가 업는듯하면서도 熟考詳察하면 至大한 關係가 잇다는 一點이다。

첫재 國策遂行機關問題에 對해서 말하면 米國의 海軍代辯者들이

「米國海軍은 國策遂行의 機關이다。」

를 公言하고 잇다함은 旣述한 바어니와、그런말을 公言하고 안코를 勿論하고、各國의 海軍은 國策遂行의機關이다。英國海軍은 英國의 國策遂行의 機關이오、日本海軍은 日本의 國策遂行의 機關이다。이것은 國策遂行에는 兵力을 絶對要件으로한다는 理를 가르치는 것인同時에 時代는 발서 陸軍時代를 지나서 海軍時代에 到達햇다는 事를 우리에게 明示하는 表跡이 되는것이요、그러므로 따라서、各國의 海軍政策은 國策의 거울(鏡)이 된다는 一事를 示하는것이다。

그러고 아직 空軍時代에 到達치 못햇스나、今後、科學의 發達을 따라서 海戰에 잇서서의 空中戰이 漸次、價値를 增大하다가 畢竟은 空軍時代가 到來할 것은 勿論이다。

何如間、現在에 잇서서는 海軍時代인故로 海軍政策은 各國國策의 거울이다。그런대로 各國의 海軍政策을 正確하게 理解하는데는 各國의 國策如何를 熟考詳察할 必要가 잇는 半面으로、또한 各國의 國策如何를 明確히 理解하는데는 몬저 各國의 海軍政策 如何를 詳細히 研究할 必要가 잇는것이다。故로 國策의 研究와 海軍政策의 研究는 兩兩相俟하야 서로 他一의 觀念을 明白히 하는것이다。따라서 國際關係를 研究하려는者는 몬저 各國의 國策을 알어야 하고、國策을 알려는者는 또한 海軍政策을 考察할 必要가 잇다。

또한 各國의 國策은 그것이 單純한 架空的理論에 依해서 樹立되는것이 아니라、各國의 傳統的國情과 또는 그나라의 處한 環境을 綜合考慮한 結果에 依하야 樹立되는것이기때문에 그러한 國策遂行의 機關인 海軍政策에도 亦是、그나라의傳統的國情과 地理的歷史的環境이 反映되는것이다。

故로 各國의海軍政策을 研究해보면 各各그나라의 傳統的國情과 또는 歷史的、地理的環境도 이것을 比較的 明白히 알수가 잇는것이다。

이런눈으로본다면 米國의大艦巨砲主義가 言外에 품긴意味와 英國의 小艦多數主義(質的制限主義)가 言外에 품긴 意味를 가장 明白히 알수가 잇는것이다。換言하면 米國의重要國策인 極東門戶開放主義의 遂行을 爲하야 西太平洋上에서 日本과 一戰을 決할意圖가 업다면 米國은 그海軍政策에 잇서서 大艦巨砲主義又는 渡洋作戰主義를 쓸 必要가 업슬것이다。이러케 생각해보면 米國은 極東門戶開放主義라는 그國策을 버리지안는限까지는 大艦巨砲主義를 버리지 아니할것이오、그대신極東門戶開放主義를 버린다면 그때는 大艦巨砲主義를 버릴것이다。이와마찬가지로 英國의 小艦多數主義는 그廣大한 版圖와 長遠한 貿易路를 말하는 것이오、佛蘭西의 陸海空三軍全體制限主義는 그나라의 地理的、歷史的環境을 反映하는 거울이오、伊太利의 對佛同量主義도 亦是、佛蘭西와의 地利的 歷史的關係를 말하는것이오、日本의 對英米均等主義는 日本의 極東에 잇서서의 現存勢力을 明證하는것이다。이런 意味에 잇서서 우리는 海軍問題가 單純한 各國의 國防問題 又는 防禦的軍備問題가 아니요、이에 相互侵略의 要具인것을 가장 明白히 알수가 잇는것이다。

다음、우리에게 至大한 關係가 잇다는 一事에 對하야 이것을 敷衍해 본다면 이러하다。即、米國이 그 極東門戶開放主義를 爲하야 渡洋作戰政策下에 海軍을 擴張하며、日本은 이에 對抗하는 意味에 잇서서 極東모로主義를 堅持하고、米國海軍에 지지아니할만한 海軍을 準備하야 兩國의 對立이 漸漸激化、小說化해 가노라면、畢竟은 衝突할수밧게 업스리라는 一事는 누구나 推測할수잇는 일이요、또 事實에 잇서서도、十中八九는 實現될는지 모른다는 要素가 極히 濃厚한것이다。그런데、萬若、이러케 가다가 一旦、日米兩國間에 風雲이 起한다고 하면 勝敗如何는 오직 하늘이알일이요、사람은 모른는것이나、設使、日本에게 最後의 勝利가 歸한다고 할지라도 戰爭途中에 잇서서 米國航空母艦으로부터 날려오는 爆擊機가 東京大阪그他主要都市에 來侵할 可能性이잇는 것만은 推測할수잇는 일이다。그러면 그때 東京、大阪에 날려오는 米國爆擊機가 京城平壤을 來襲할 憂慮가 도모지업슬까? 이 一事에 對하야 그것은 杞憂라고 斷言할 사람은 업슬것이다。그러다면 때 잇서서는 米國의 門戶開放主義가 現在의 우리 又는 次代의 生命을 빼아슬境遇도 全然 업스리라고 斷言할수는 업는것이다。이러케 보아 오면 各國의 國策과 그遂行을 爲하야서의 海軍政策은 一見、우리와는 何等의 關係가 업시보이면서도 事實에 잇서서는 至大한 關係를 가젓슴을 알것이다。漢江물은 테임쓰江물과도 相通해 잇고、또 미씨시피、아마존河와도 相通해 잇다。그러기때문으로 미씨시피河와 테임쓰江에 떠러진 진흙은以波傳波하야 畢竟은 漢江물을 흐리고야 말것이다。(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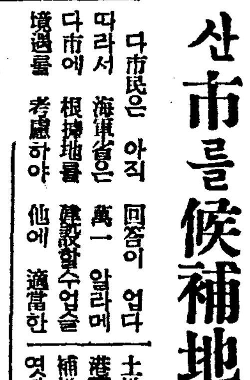
米政府金門灣頭에 空軍根據地建設

산市를候補地로選定

【華盛頓二十八日發聯合】華府、倫敦兩條約의 滿期失効를 압두고 米國政府는太平洋上의 防備强化에 全力을 傾倒中인데 새로 金門灣頭에 巨大한 空軍根據地設置를 企圖하고 着着 計畫을 進行中이라고 解釋되다 海軍長官스완슨氏는 二十八日午後 海軍省當局의 方針을 宣明하야 如左히 述하엿다

桑港灣頭에 空軍根據地를 建設하는것은 國防上 緊急한 要務이다 海軍當局은 알라메다空港에 空軍根據地를 建設할 意向이데 根據地建設에 必要한 土地를 새로 政府에 移管하는 件에 關하야 알라메다市民은 아직 回答이 업다 따라서 海軍省은 萬一 알라메다市에 根據地를 建設할수업슬境遇를 考慮하야 他에 適當한 土地를 探査하고잇는터이다 桑港灣의 西岸 산·마테라市를候補地로 드디어 準備에 着手하엿다 (사진은 스완슨氏)

에國皇帝陛下 全國民에宣言



【아디스아베바二十九日發聯合】에디오피아皇帝하일레셀라시에一世는 二十九日 코프트敎크리스마스에 際하야 全에디오피아國民에게 左의 宣言을 發하엿다

全에디오피아國民에게 告함 우리는 今後에도 多大한 苦難에 逢着하게될것인데 우리는 모든 苦難에 堪耐하지안흐면 안된다 神은 에디오피아便이다 반듯이 祖國을 爲하야싸우고잇는 우리兵士及 王의 王에게 加護를 내리실것이다 나는 에디오피아國의 熱心한 支持가 우리의 勇敢한 將士의 勇氣를 百倍하야 에디오피아의 勝利를 齎來할것을 確信한다 (사진은 에皇帝)

北寧鐵路紛擾에 日本側에서斡旋

【天津二十九日發電通】冀東自治政府와 冀察政務委員會間에 北寧鐵路의 管理等에 關하야 紛糾가 生하엿다는 報道에 一部方面으로부터 憂慮하고 傳하엿는데 이대로 放置해두면 如何히 尖銳化할는지 모르므로 日本駐中軍部에서는 條約에 基하야 權益擁護、居留民保護의 立場에서 雙方의 斡旋을 行하야 平和解決에 努力하게되엇다고 確聞된다 그리고 鐵路局長 殷同氏는 機에 乘하야 鐵道는 日的이라고 傳하는 雙方의 斡旋에 依하야 解決할餘地가 잇다고 보인다

六個月貯油問題 遂國際問題化

英米兩社政府의方針을拒否 ◇…明春初에折衝開始

【東京電話聯合】國防上에 重大한 關係가잇는 六個月의 貯油義務問題는 今年四月上旬 石油業法이 施行되어 內外石油會社는 爲先 三個月의 保有義務를 負擔하고 라이징선、쏘코니바큠兩英米會社는 商工、外務兩當局과 數十回에 亘한 折衝의結果 三個月의 保有義務에 對해서는 이것을 容認實行하엿스나 六個月에 對해서는 끗까지 拒否의態度를 取하엿기때문에 業法의 運用에 當하야 暗影을 投하게되엇스므로 陸海軍、大藏、商工、外務、拓務資源局關係各省은 協議한結果 十一月부터施行된 六個月貯油義務는 一旦 明年六月末까지 延期하고 國產會社에 對해서는 七月부터 義務履行을 命하야 石油業法의 面目을 세우고 一方 明年度豫算에 右義務에 對한 國庫負擔을 計上하야 外國二社에서 政府의 方針을 說明한바잇섯는데 라이징선、쏘코니兩社가 모다 何等回答을하지아니하야 드디어 問題는 越年할 形勢인데

米國國務次官補 植民地開放主義

【필라델피아二十八日發聯合】民主黨의 巨物하우스大佐는 植民地再分割을 提言한以來 植民開放은 國際政局의 不安을 一掃하는것이라고 論議되게되엇는데 國務次官補프란새스、마이어氏는 二十八日 피라델피아市의 民主黨婦人午餐會席上에서 植民地에 關한 機會均等을 提言하고 米國政府는 求償互惠通商政策에 關連하야 植民地開放政策을 考慮하엿다는 事實을 示唆하엿다 프란세스마이어次官補는 가로되

國際不安을 一掃함에는 먼저 經濟的軍縮을 斷行하고 通商貿易의 復活을 圖하지안흐면 안된다 萬若各國商品이 相互로 國境線을 넘어 他國에 輸出되지안는境遇에는 軍隊는 國境線을 突破하야 大擧 他國의 領域에 侵入하게될것이다 그러나 經濟的軍縮에 關해서도 自主獨立의 主權國과 植民地屬領과의 事情國情이다른 主權國에서는 漸次 通商貿易의 自由를 復活하는 現實的規크에 依하야 國際平和의經濟的基礎가 確立될것이다 그러나 植民地其他非主權國領域에서도 當該植民地의 支配權을 商取引을 中心으로한希望一切에 對하야 全하均等의取扱을 附與하지안흐면 안되다 世上에 往往히잇는 過剩人口의 處分策으로 植民地의 必要를 說함과如한 議論은 現實을 無視한 神話에不過하다 世界各國은 容易히植民地에移住하지안코 植民地獲得問題를 解決하는것은 想像도 못할것이다 勿論 植民의 原料資源은 一般이 想像하는것만큼 必要치안타 그러나 一旦戰爭이發生하면 原料資源의 不足은重大難局을 誘致할實情에 잇기때문 究極하는바 國際平和를 保障하는 根本策이 樹立되어 各國이 植民資源을 充分히利用할수잇게되면 特히 植民地政策에 依하지안터라도 何等生活不安을 引下하지안코 全國民을 扶養할수잇슬것가다 植民政策에關하야 各國에 均等한 機會를 保障하는것이 國際平和確保의 要締이다

우르과이國 對蘇國交斷交

【華盛頓二十八日發電通】우르과이가對蘇斷交를 하게되것은 米國合衆國內의 對蘇斷交論者에게 運動再開의 刺戟을 與한 感이 잇서 華盛頓政界의 關心의 的이되어잇는바 中南米諸國中 蘇聯과 外交關係를 締結한것은우르과이一國만이잇스므로 그斷交의 結果은 蘇聯의 南米의 精神的、經濟的活動의 基盤을 失한것이라고 보이게되어 이제는 駐米大使館이 南北米大陸의 活動의 本據라고 指目되게되엿다

八面錄

"危機"를豫想하든 一九三五年도 今日로써 永久히 消滅되는 運命。

◇

豫想이던진 軍備擴張의 爆彈은 서랍대로에 또空軍擴大 植民地返還 大戰責任條項削除로 再燃。

◇

東阿에展開된 伊에兩國의角逐은 聯盟의無力과 戰爭의危機를 낫낫이시暴露。

◇

北中을 에워싼 極東의 濃霧는 新陽이온다해도 指標가漠然하니 一抹의不安은 여기도 潛在。

◇

倫敦海軍會議는 決裂을豫想하면서 越年하는 姿勢이니 風雨雨를 亦難測。

◇

어름판 잇그럽다 아이들 넘어집니。 스키도 조타만은 벼랑이 무섭고나。 새해라 一九三六年 解凍머리 어려워。

今日本紙四面

新年劈頭 四大都市의 鐘을 打開하는 純粹藝術篇! 同時公開

請

아리랑고개

朝鮮語全發聲

朝鮮映畫京城撮影所第二回作品

監督…洪吐無
撮影…李明雨
錄音…中川堯史

主演…盧載信・文藝峰
助演…柳誠實・許英蘭・文秀一・李春汀・崔雲峰

大邱…互樂館
第一週 オリエンタル映畫社提供 猪突猛進 / パテノ映畫社作日本語版 モンテイの荒武者飛行
第二週 R、K、O社特作 總天然色 虛榮の市 / コロンビヤ映畫會社特作 警官車十七號

平壤…金千代座
特作品、U、A映畫提供 ユナイテッド會社超特作發聲版 パワリー
ウオーレスビアリー ジョウジラフト 主演 ジヤーキークーパー

新義州…新鮮座
R、O、A、映畫提供 コロンビヤ映畫會社特作發聲版 奇傑ジョーンス
コロンビヤ映畫會社特作發聲版 激浪
新劇場正初番組 第一週 洞窟の女王 ミシ作ッピー 股旅新八景 / 第二週 男の敵 社長は與謀が好き 月光の下ル

이것이야말로 全世界興行史上空前의最高成績을 樹立한굉장한大衆映畫!!
機關銃、催淚彈、散彈銃을亂射하야 한사람이라도남기지말고殲滅하라 하는그소리에應하야敢然히鐵十字火中게生命을걸고싸우는司法省直屬의特高G맨의壯絶無比한이야기 보아라! 全巻에흘르는未聞한戰慄 들으라! 男子도또한울지안코못박 일사내와사내사이의魂의慟哭

ワーナー・ナシヨナル超特作 全發聲 日本版
Gメン (지-멘)
主演 ジエームス・キヤグニー
助演 マーガレツト・リンゼイ・ロバート・アームストロング・アン・ヴオザーク・バートン・マクレーン
三日부터同時上映

全鮮配給 高麗映畫株式會社 配給部 李創用 京城鍾路二丁目七番地(三階) 電話光化門四四六番

東洋劇場 同時封切 優美館

製絲工場發火로 昨夜五戶七棟全燒

住民은工場不備로大憤慨

昨夜新設里의大火

이십구일 오후열시 사십오분밤 늣도록 야업하고잇든 시외신설리(新設里) 일백삼십일번지 한성제면주식회사(漢城製綿株式會社)공장에서 불이 이러나 경각에 근처로 연소하야 전후오호 칠동을 전소시키고 손해이만수천원을 내이고도 소방긔관의불비로 삼십일 아츰에야 겨우진화되엿다 화재의 원인은 아즉 조사중이나 동공장의 긔계는마찰열(摩擦熱)이 심하야것헤잇든 솜에불이부터 순식간에 온공장에불길이 퍼진 모양인데 평소부터방화설비가업고 수도는물론 우물조차업는 공장인만큼 그이웃집인 청물상리자명(李滋明) 조상긔 김준택(金俊澤) 홍은식(洪恩植) 박흥삼(朴興三)등의 집에연소하야 전부를 불사르고마랏다 동야열한시경 불이맹렬히 타고잇슬 그동안부근주민쪽과 공장측과 사이에 한바의 격투가잇섯다는데 부근주민들은평소부터 공장주인 구영창(具永昶)에게 공장이험하니 우물을 파든지 혹은 공동으로 수도를 설비하자고 루차 권고 하엿슴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응하여 오다가 이번까지 네번채나 불을 일으켜 자긔들 집을 불사르고 말엇다하여 크게 불평을 가지고 격투까지 한것이라 한다 손해액은 아즉 조사중인데 이만이삼천원에 달하리라하며 동공장만은 공동화재보험회사(共同火災保險會社)에 일만오천원을 드러잇고 남어지 사호는 전혀호소할곳이 업슴으로 그들은 전긔사정을드러 공장주에게 강경한 요구를 제출하고 잇서 이문제가 장차엇더케 진전될것인지크게 주목되는동시에 일조에 생활의 근거를일코 가두에 헤매이는 오십여명직공과 이백여명 가족의 생활이 걱정된다

(사진은 신설리 화재현장)

徽文高普校의校主 荷亭閔泳徽氏危篤

今日午前八時宿患으로

현재 휘문고등보통학교(徽文高普)의 설립자요 과거구한국 정부의 현관이든하정민영휘(荷亭閔泳徽)씨는 삼십일오전 여덜시 오십분 시내인사동(仁寺洞)에잇는죽동궁(竹洞宮)에서 숙환으로 위독상태에빠젓는데금년이팔십사세이다 략력은다음과가트며 그동안 동일은행(東一銀行)등에관계하여 실업 계에도 관계가깁헛다

▲開國四百八十七年四月九日 文科

▲同四百九十七年三月十四日 陞嘉善

▲同五百四年五月二十三日 陞輔國

▲同五百五年九月二十三日 任中樞院議長敍勅任官三等

▲光武三年三月十八日 任掌禮院卿敍勅任官三等

▲同年五月十九日 任陸軍副將

▲同九年三月四日 侍從院卿兼任內大臣敍勅任官一等

▲同年四月十六日 特敍勳一等八卦章

▲同十一年三月十五日 特陞敍大勳李花大綬章

▲隆熙二年五月十九日 奎章閣祗候官

▲明治四十二年十月七日 子爵叙受

▲大正元年十二月七日 從四位叙受

▲明治三十七年九月 廣成義塾設立

▲大正十一年 財團法人徽文義塾設立

(사진은 민영휘씨)

"추력"과電車 衝突"往十里"

이십칠일 오후 다섯시 십오분쯤되여 시외 신당리(新堂里)이백오십일번지압 큰길에서 왕십리(往十里)를 출발하야 광희문으로 향하든 경전 이십오호와 충북 단양(丹陽)으로 향하든 충북백구십구호의 화물자동차가 충돌되엿이 잇섯는데 다행히운전수와 승객에는 별피해가 업섯고 전차중앙부에 략이백원의 피해가 잇섯다한다

歲暮結項家

이십구일아츰 열한시쯤되여 시내미생정(彌生町) 뒷산솔밧속에 성명、나이、사는곳을 모다알수업는어떤조선사람사나이가 솔가지에 목을매이고죽어잇는것을 지나가든 사람이 발견하고 곳 소관룡산서(龍山署)에알리엿슴으로 지금검시하는중이다 그리고 원인도아직알수업다한다

大同郡傷人强盜 住民들毆打捕縛

犯人은生命이極히危篤狀態 被害良民二名도重態

【平壤】대동군 남곶면지포리(大同郡南串面芝浦里) 연초소매상지익순(池益淳)(二六)의집에 이십구일 새벽세시경에 식도를 가진 강도한명이 침입하여 금품강탈을하려든 순간 주인 지익순은 강도에게 달려들어 격투를 개시하엿고 가족들은 부락민을청하여 포위체포하려는순간 강도는 식도로 지익순과 동리사람김룡순(金龍淳)(二七)의 두명을찔러 중상을가하는 사이에 부락민들이 곤봉으로 범인 중화최흥순(崔弘淳)(二七)을 때려 말도할수업는중상을 가하고 경관이 오기전에 체포해노앗다 평양지방법원에서는 대삼(大森)검사가 현장에 출장하여 림검한후범인은 최(崔)공의의 응급수당을 밧고평양서에 수용되엿스나 생명이 위독한모양이며 강도에게 부상한 두명도 상당히중상이므로 도립의원에 입원치료중이다 그런데 이강도범인 최흥순은 수일전 력포(力浦)와 중화(中和)에서 촌가를 습격하고 금품을강탈한범인이 틀림이 업스나 중상으로 말을하지못하는 관계상취조에곤난하다고한다

羅津에海事出張所

제삼기 공사의 끄테는일연에 구백만톤(噸)의 화물을 삼켯다 가배아들수잇는 대국제항이될라진(羅津)의 항만공사의 일부는 이미 지난 시월에 완성되여이것만으로도 연백만톤가량의 화물을 포용할수잇는 조선제일의 항만이되엿다 여기에 따라서 체신국에서는역시 조선일의 표식설비(標識設

既決思想囚 三百七十名

咸興獄中過歲千餘名

【咸興】명랑하여야 할새해를쏠쏠한오창에서 지내지안흐면 안될사람들이 함흥형무소에만 얼마나되는가—보면 총수일천사십명으로 그중 중역수가 팔백오십륙명 로역수십구명 미결수일백륙십오명으로서 이중 사상범이 삼백칠십팔명의 다수가잇다

交通禍兩件 룡산서(龍山署)

▼…지난이십팔일저녁 여섯시삼십분쯤해서 한강통(漢江通)삼번지 야포대(野砲隊)드리가는어구에서 시흥군동면시흥리(始興郡東面始興里) 리순이(李順伊)(一三)라는안악네가 시내에서 룡산쪽으로 가든전차에서나려서 길을건너가다가 때마츰 봉래정(蓬萊町)일정목 경전(京電)운전수백원상(白元相)(二三)이가 운전해가지고 달려가든 칠천이백오십칠호택시에 치여 넙적다리 끝을 이틀동안치료바들 상처를바덧고。

▼…이십구일아츰 여덜시오십분쯤 되여서는 원정(元町)일정목팔십구번지 길압해서 영정(榮町)일칠번지 운전수라영식(羅永植)(二〇)이가 운전해가든 구천이백십칠호자동차와 때마츰원정(元町)쪽으로 들어가든 백사십사호전차가서로 다다드러 전차는 운전대압쪽에 칠십륙원어치의 손해를 바덧고 자동차는『펜더ー』와 및헤드·라이트』등에 이십원가량의 손해를 입엇다는데 과실은 자동차에 잇다한다

今年中咸興火災

四十五回損害五萬圓

【咸興】명랑하여야할새해를 쏠쏠한오창에서 지내지안흐면 안될사람들이 함흥형무소에만 얼마되는가보면 총수일천사십명으로 그중중역수가 팔백오십륙명 로역구십구명 미결수일백륙십오명으로서 이중사상범이 삼백칠십팔명의 다수가잇다

深夜歲暮大街에 쌈패의大血戰劇

氣盡脈盡한채被檢

세말의 길론 밤거리에서 이러난 류혈극 한토막이잇다=이십팔일 오후 열한시반경에 시내 청진동(淸進洞)이백륙번지 예사는 마적(馬賊)이라는 별명을가진 싸홈패의 괴수 김성재(金聖在)(三〇)가 시내 공평동(公平洞)일백이십삼번지압 길압골지나갈적음 창신동 ... 김창근(金昌根) ... 패와 마조처 전부터 ... 측그 ... 시 서로 결투하기를 선언하고 맹렬한 육박전을 시작하야 장시간도로업치고 뒤치고 싸우다가 량편이다기진력진한때에 소관종로서원이 발견하고 전긔김성재는 가슴과허리에 타박상을 입고김창근은 얼골에여섯센치가량의 렬상을입은채 승부도업시경찰서에검속되엿다고한다

運動競技

總得點과千五百米에 金君斷然首位

萬米엔中途顚倒되여ㄴ저

奉天送別競技第二日

【奉天二十九日發電】世界을 代表送別競技大會第二日은 二十九日午前九時三十分부터 國際링크에서 續行되엿는바 이날의風速二米四〇 氣溫은零下十八度로急降하야 極히不良한『컨디숀』아래 競技는進行되엿는데 中途棄權하는選手도잇섯스나 우리三勇士는 最惡의『컨디숀』에도不拘하고 實로처음밧는新經驗을맛보면서 全種目을走破하엿다 이리하야 金君은千五百米에 三分十一秒八로 滿洲에른우에서는 作成키어려운 快記錄을 지엇고 一萬米에는 金君은猛烈한벽쥐로 滑走하야 好記錄을豫想케하드니 불힝이만히 깔린곳을지나다가 걸려서 앗갑게도顚倒하야 다시이러나 最終까지力走하엿스나所要時間一九分三五秒六으로 安達選手보다『二秒二』가늣젓다 그리고綜合選手權은金君이總得點二二四、五로首位를占하엿고 同링크에서 자라난 安達選手가 第二位에 讓하엿스며 李君과張君은三、四位로 떠러젓다 以上의記錄으로보아 스피ー드스케ー팅은 氷質과其他『컨디숀』의 影響이 얼마나 크다는것을 엿볼수잇다 日光大會에서 作成한것보다는 모다가 拙劣한記錄뿐이라하야 우리三選手의 實力이低下한것은 決코아니다 氷盤이 滿洲보다 良好한 歐洲에서는 그만큼『핸듸캡』을부처서 자못有望하다고 아니할수업다 一行은 三十日午後四時三十分 奉天發一路戰地歐洲로向할터이다

【千五百米】(타임레ー스) ▲1、金正淵二分三一秒八 ▲2李聖德二分三六秒四 ▲3、安達二分四一秒二 ▲4、石原二分四一秒九 ▲5南洞二分四三秒四 ▲6張祐植二分四五秒四 ▲7中村二分四六秒二

【一萬米】(타임레ー스) ▲1安達 一九分三三秒四 ▲2金正淵 一九分三五秒六 ▲3張祐植 二〇分三〇秒四 ▲4李聖德 二〇分二一秒三 ▲5南洞 二〇分五六秒八

女子千米 ▲1邊 二分三秒五 ▲2大谷 二分四秒五 ▲3江島 二分六秒四 ▲4河波 二分七秒九

女子五百米 ▲河波 一分〇六秒三 ▲江島 一分二三秒 ▲3本谷 一分二三秒六

【女子千五百米릴레이】▲1代表 三分五秒四(以上滿洲新記錄) ▲2新記錄됨 三分四秒

【女子總得點】▲1江島 一五一、二二六點 ▲2木谷 一五三、一點 ▲3村上(奉天) 一五九、四六點 ▲4河波 一六四、五二三點

…送別競技의得點表…

順位		五百米	千五百	五千米	一萬米	總點
1	金正淵	四九·一	二·三一·八	九·二〇·二	一九·三五·六	二二四·五〇
2	安達	四七·九	二·四一·二	九·一四·三	一九·三三·四	二二五·七〇三
3	李聖德	四七·〇	二·三六·四	九·三六·四	二〇·二一·三	二二七·八二八
4	張祐植	五〇·九	二·四五·四	九·二一·四	二〇·三〇·四	[illegible]
5	南洞	[illegible]	二·四三·四	[illegible]	二〇·五六·八	[illegible]
	石原	[illegible]	二·四一·九	[illegible]	棄權	
	中村	[illegible]	二·四六·二	[illegible]	棄權	

(以下略)

日光의中等氷上 邊君萬米一着

【日光電話電通】第六回全日本中等氷上競技大會最終日 第六回全日本高校氷上大會及 第一回五帝大氷上大會 各第一日은 三十日午前七時부터 日光細尾링크에서 擧行한바 이날은 天氣晴明한가운데 氣溫零下三度 氷面은 좀軟弱한便이엇스나 同大會最初의良好한『컨디숀』이엇다 이날의成績은 다음과갓다

【中等五百米】一着 木谷(新義州商業)四七秒九(中等新記錄) 二着 泉山(八戶商業) 四八秒三(同) 三着 小山(奉天中學)四九秒二 四着 橋本(同) 四九秒五 五着 邊成厦(新義州高普) 四九秒八 六着 柳華來(新義州高普) 五〇秒一

▲得點 奉天七、新義州商六、八戶商五、三務校一、新義州高普一

【中等一萬米】一着 泉山(八戶商業)二一四分四秒 二着 邊成厦(新義州高普) 二五分一六秒 三着 小石川(奉天中學) 二五分二三秒 四着 齋藤(同) 二五分二三秒二 五着 伊藤(諏訪蠶絲) 六着 金健會(新義州高普)

▲得點 八戶商六、三務校五、奉天七、新義州高普一、諏訪蠶絲二

【高校五百米】1古澤(成城)五秒八

【高校一萬米】1竹內(水戶)二四分三二秒八

全米學生體育總會 올림픽參加를決議

【紐育二十八日發電通】全米學生體育聯盟總會는 二十八日當地에서 開催한바 第十一回올림픽大會開催國이獨逸이라는 猶太人排斥問題에關하야 全米學生選手들은伯林올림픽大會에 參加할것이냐? 不參加하겟느냐?를 討議한結果 滿場一致로서 欣然히 同大會에 參加할것을 決定하엿다한다

年賀狀의洪水 昨年보다一割增

市內四個所郵便局連日徹夜

昨夜까지의接受가五百萬枚

새해에 복만히 바드시사고 주고밧는 신년의『멧세지』년하장(年賀狀)이 례년보다 수부(受付)와 도착(到着)에모다 약일할식증가되여 경성우편국을 위시하야 시내각집배 우편국에서는 이번하장 처리로 전국원은 림시로 채용한종업원과 함께밤낫으로눈코를 뜨지못하는 형편이다 경성、광희문、룡산、서대문 우편국등 시내우편국에서 이십구일까지 수부한 년하장총수는 오백삼십팔만오백칠십칠매로 작년의 사백팔십팔만 일천십팔매에 비하야 약일할이 증가되엿스며 도착총수는 삼백오십만이백오십팔매로 작년의삼백이십만 사천오백오십구매에 비하야 약구분팔리가 증가되엿다

뻘딩街의悲劇 불상한僵屍

今朝零下十六度九分 今朝의最低溫記錄

【평양】여기저기 오층오륙층소사나날이 호화로와지는 번화가(繁華街)태평통(太平通)래로후에 만인의눈에 쯔이는 시체(屍體)가 업어떠고 잇는그대로누어잇다 이십구일밤부터 갑작히 치위가 심하야 삼십일 새벽에는령하 십륙도구분이라는 금년에드러 처음보는 치위의 신긔록을 나타내이는 순간 헐벗고 굶주린 사십여세 되여 보이는 남자한 사람이 태평통 일정목 조선 미술품 제작소(朝鮮美術品製作所)진열장 압해 거적을 허리에걸치고 떨고잇다가 아름답지못한 자태를 벌려노코 그만 구더지고말엇스나 차저갈곳은물론 처치하여주는 이조차 업시 오고가는사람의눈을 찌푸리게하고 누어잇서 이것도분주한 세모풍경의 한장면이다

사람가리우는 怪光線發明

凶牙利化學者가

【파리二十九日發聯合】이십구일 부다페스트발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항가리』사람화학자 『부리빌』씨는 사람몸을 외부로부터 완전히 감출수잇는 신비적 광선을 발명한결과 두사람까지는 완전히 외부로부터 감추는데 성공하엿다 『푸리빌』씨는 처음자긔연구소에서 연구중에 우연히 수은등(水銀燈)의 광선속에 노허둔 물체가 점점 흐미해지며 내종에는 아주보이지 안해지는데 『힌트』를 어더 다시연구를 거듭한결과 이번가튼성공을 한것이라는데 이후도 『런던』에잇스면서 광선연구를 계속할터이라한다

母親葬禮日에 貧民에白米施給

兼二浦姜氏兄弟孝誠

겸이포(兼二浦)에사는 강경근(姜景根) 강경헌(姜景憲)량씨는 지난 이십구일 자기들 모친의 장례식날 그이웃가난한 사람들에게 현금오백원을내여 쌀을사가지고 매호에두말식 논하주엇다 경근 경헌량씨는 형제간으로 서로 부모에게 효성이지극하야 기로일흥이 노론터에 이번모친의 작고를통하야 애어한 남어지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처럼 적지안흔돈을 회사한것인데 시혜를 바든사람들은 물론일반사회의층에 자못크다 한다。

京城寫眞師協會總會

부내수은동(授恩洞)에잇는 경성사진사협회(京城寫眞師協會)에서는 삼십일 오후 일곱시 부터 장곡천정(長谷川町) 금곡원(金谷園)에서 총회겸망년회를 개최키로 되엿는데 회원은 다수참석하여주기를 바란다고한다

三十日(月曜)

◇午後六時 이야기 今年의兒童文藝에對하야 李軒求

◇同六時二五分 講演 理論과實踐 朴鍾鳴

——◇우숨의밤◇——

◇同七時三〇分 漫談 黃材景

◇同八時 唱劇調 一、短歌卓卓 二、唱劇調 春香歌中御使出道에호나는대 宋萬甲 鼓手韓成俊

◇同八時三〇分 흉내 張明浩

◇同八時五〇分 라듸오 코메듸 來日은五百圓만 朴珍案 라듸오、푸레이미팅 演出 朴珍 效果 效果班

曆

十二月卅一日(火) 十二月建己丑(小)初六日 辛巳·金·房·執

●祭祀에宜함 ●大雪八日(舊月十三日) ●冬至二十二日(舊月廿八日)

天氣豫報

北中國의高氣壓은 多少發하여저서 七七六미리를表示하고 氣壓은日本方面으로 나저젓스며 日本海의低氣壓은 오호츠크海로갓다 滿洲、朝鮮은一般으로天氣가조코 季節風도漸次로弱하여젓스나 湖南地方은 흐리며 小雪이잇고太平洋側日本은晴日本海側日本은天氣가조치못하다

豫報 京城은 今夜는맑고추이는계속하고 明日도 맑고추이가계속되다 京城全道도갓다

昨日最高 零下二、六 最低 零下一六、四 今朝 零下一六、九 今日正午 零下一一、四

全般續報 午前八時三十分 仁川觀測所發表 注意事項은 모다解除햇다 平北、平南、黃海、京畿、忠南、全北、全南의沿岸

地方氣象續報 特報한注意事項은 모다解除、沿海部

朝鮮信託株式會社 第六次貸借對照表 昭和十年十一月卅日現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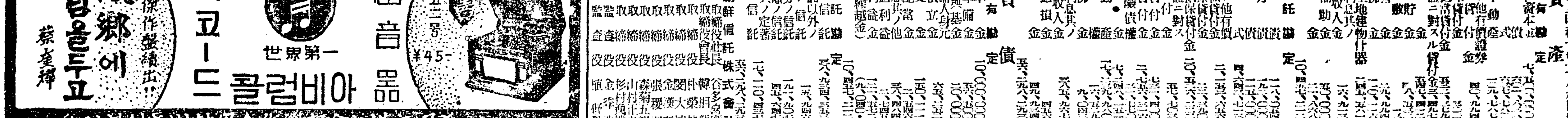
資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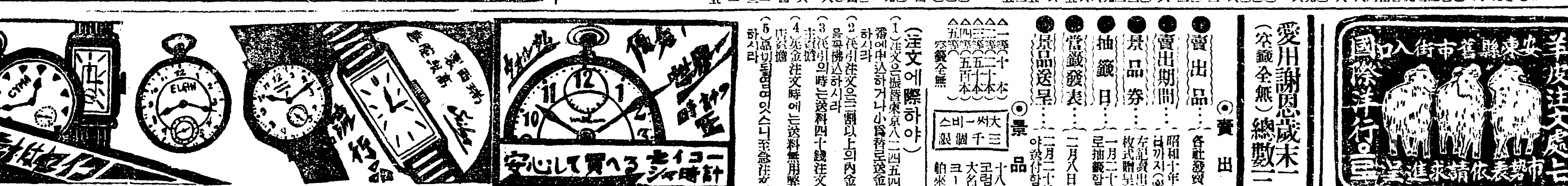
科目	金額
固定資產	
未拂込資本金	[illegible]
株式	[illegible]
所有不動產	[illegible]
其ノ他有價證券	[illegible]
擔保貸付金	[illegible]
動產抵當貸付金	[illegible]
不動產擔保貸付金	[illegible]
公共團體ニ對スル貸付金	[illegible]
預ヶ金	[illegible]
郵便貯金	[illegible]
支拂保證金	[illegible]
立替金	[illegible]
假拂金	[illegible]
營業用土地建物什器	[illegible]
公債利息其ノ他未收入金	[illegible]
他府縣補助金	[illegible]
收支金	[illegible]
現金	[illegible]
信託勘定	
計	[illegible]
國債	[illegible]
地方債	[illegible]
社債	[illegible]
株式	[illegible]
其ノ他證券	[illegible]
動產擔保貸付金	[illegible]
不動產擔保貸付金	[illegible]
公共團體ニ對スル貸付金	[illegible]
保證貸付金	[illegible]
信用貸付金	[illegible]
生命保險證書擔保貸付金	[illegible]
不動產	[illegible]
貸ヶ 動產	[illegible]
假拂金	[illegible]
公社債利息其ノ他未收入金	[illegible]
經過利息	[illegible]
現金	[illegible]
計	[illegible]

負債

科目	金額
固定負債	
資本金	[illegible]
法定準備金	[illegible]
退職給與基金	[illegible]
職員及傭人身元金	[illegible]
保證受入金	[illegible]
假受金	[illegible]
未拂配當金	[illegible]
未拂利息其ノ他	[illegible]
未經過利益	[illegible]
當期利益金	[illegible]
(內前期繰越金)	[illegible]
信託勘定	
金錢信託	[illegible]
金錢信託以外ノ信託	[illegible]
有價證券ノ信託	[illegible]
金錢債權ノ信託	[illegible]
土地及其ノ定著物ノ信託	[illegible]
計	[illegible]

朝鮮信託株式會社 取締役社長 韓相龍 / 專務取締役 谷多喜磨 / 取締役 朴榮喆 / 取締役 閔大植 / 取締役 金季洙 / 取締役 張稷相 / 取締役 森菊五郎 / 取締役 山村正夫 / 取締役 彭振璣? / 監査役 金秊洙 / 監査役 韓翼教





柳韓洋行

建築은 追求함에 있어 世界的權威는 健康에 — 네오톤토닉 으로

◉セイコーシャ 地方時計部
(振替東京八二四五四番) 東京市京橋區上落合二ノ六一七

告急 市價四分の一(業外國商館職資) 大賣出し(處分品引受整理)

◉クローム腕時計(舶來腕皮付) / ◉クローム懷中(エルジン) / ◉クローム懷中(タバン) / ◉十八金18HK懷中(ウオルサム) / ◉十八金HK高級腕時計 / ◉十八金18HK懷中時計

(注文에際하야)
(1)注文은振替東京八二四五四番에申込하거나小爲替로送金하시라
(2)代引注文은三圓以上의內金을곡拂込하시라
(3)代引의時는送料四十錢注文主負擔
(4)先金注文時에는送料無用
(5)品切되엿더이잇스니至急注文하시라

愛用謝恩歲末二重大景品附大賣出
(空籤全無)總數三千個限賣出開始!!
◉賣出規定
●賣出品……各社發賣크ー롬13HK側腕、懷中時計
●賣出期間……昭和十年十一月十五日부터昭和十一年一月十五日까지(賣切次第締切)
●景品券……左記賣出品中買上高五圓以上에限景品番號券一枚式贈呈함
●抽籤日……一月二十八日同業組合立會下에嚴重公平抽籤함
●當籤發表……二月八日發行의各新聞紙上抽籤經過發表함
●景品送呈……二月二十日부터三月三十一日까지景品券引換하야發付함
◉景品內譯
一等 十本 十八金側懷中時計(十六型十七石入) 一個式
二等 五十本 코럼비아포ー타블蓄音器 一臺式
三等 二百本 大名蓄寫眞機(獨乙製) 一個式
四等 五百本 크ー롬側腕時計(九型十五石入) 一個式
五等 空籤全無 舶來샤프펜실一本式無漏贈呈
大판매 스비ー써 三千個限

●히스테ー리에 はれやか●

修正技師採用 詳細事는本館으로問議 大田府中橋通 第一寫眞館

好職業 男女滿近不問自宅職業수○餘人募集社 業務案○冊〇枚 多部無料〇職業案內申込 大阪大韓經社 博文社

旅行中임으로 年末年始缺禮 京城府會議員 劉承復

〈チマの精〉美晶크림

기침、감기、천식에 浅田飴

花婦地獄變 嵐寬壽郎主演 新興키네마、高田프로合同作 高田프로獨立記念超巨篇作 原作村上德三郎 監督牛原虛彥

急行列車 高田稔大熱演 毎日晝夜三回興行

永樂町 中央館

卅一日大公開(新春第一週) 去年は映畵界の常勝中央となりました記念すべき二週年であります斯かるが故本年度の中央が皆様に捧げる雄大超特作品何卒斎に倍して永却不變の御聲援の程、伏して願する次第であり 寬プロ超特作時代劇 松竹下加茂撮影所特別應援 新興キネマ京都太秦大合同製作 原作佐佐木味津三 監督二川文太郎 古川捕物帖 オールトーキー版

十二月卅日早日忘年朝鮮映畵公開 大衆料金 階上十五錢 階下十錢 十曜日曜祭祝日은畫夜二回公開 낫一時 밤七時十五分始映

大京키네마社超特作品 守一과順愛 全八卷 監督 李鳴水氏 主演 李慶善氏 金蓮實嬢

社會劇 바다와싸우는사람들 監督 梁哲氏 主演 羅雄氏朴齊行氏 파라마운트社特作品

喜劇 結婚商賣 全六卷 監督 호랑크닷돌氏 主演 아돌프만주氏

豫告 昭和十一年一月一日낫부터 晝夜三回間! 朝鮮映畵 春風處女篇 萬人生篇 四卷 全十一卷 主演 李慶善 文藝峰

桃花劇場 麻浦桃花洞 電話三一番

新春第一週의壯觀! 卅一日부터四日까지五日間 毎日三回 午前十時半 午後一時半 六時廿分

◆MGM超特作映畵 新興월리암루빼監督 체스타모리ー스主演 라이오넬빼리모어찌아서共演 男性NO一 超性的의悽慘、恐怖、가냘처로르는텀버원의快作이以上의G엔映畵가絶對的業다는當業者들의絶讚에못지問題傑作品이다

◆코럼비아超大作映畵 巨匠빅터셀쟁거監督 名星구레스무어主演 노래의날개 音樂豪華版이다映畵的으로音樂的으로完璧이다本年初頭藝術的人氣를모을만한무직메로드라마의王座篇이다!

◆日活超特作외소다錄音映畵 佐渡情話 池田保監督 尾上菊太郎、山田五十鈴主演

團成社

竹山地方紹介版【其二】

京南의關門이오 產業中心의竹山
◇……物貨豊富한都市로서 四通八達의交通網

竹山은 地味가肥沃하고 水利가 便宜한中 淸渼川(天民川)流域一帶에는 郡內의有數한 平野가展開되며 產物이 豊富할뿐아니라 三南、西北에서 頻頻이發生되는 水旱天災를 몰수업는것은 本地方만이 享受하는 天惠의幸福일것이다 竹山市場은 元竹山郡廳의 所在地로 兵亂과 火災를數次거듭하여 一時는 形骸만 남어잇섯스나 地利的地位와 交通上便宜는 自然이 京南의咽喉가되고 關門이되여잇서서 또다시復活條件의勢로 逐日發展되여잇다 京南鐵道 京畿線은 天安으로부터 當地를經由하여 長湖院에至하고 自動車線路는 거미줄가티 늘어잇스니 平澤으로부터 安城을經由하야 長湖院에 至하는平澤線 淸州로부터 鎭川을經由하는忠北線 水原으로부터 金良場을經由하는水原線 京城으로부터 利川을經由하는 利川線等等이 모다當地에서 發着케되여 交通이 至便한 關係로 貨物의集散이 자못 殷盛한데 特히鎭川 陰城 利川 龍仁等地에서 모여드는 產米는 年百萬石을 突破하는現狀으로 『米의竹山』이라는別名까지 엇게되엿는데 米穀輸出에 잇서서 京南鐵道全線을通하여 堂堂第一位를 占하고 產業 金融 商工等諸般施設도 漸次完備되는中 牛市場設置 米穀檢查所 新築 電燈架設等이 모다今年度의 新興事業이다 그리하야 모든것이 質的으로 量的으로 大竹山의 新面目을 形成하엿다

竹山의史的回顧
高句麗時代엔皆次山 新羅朝에는介山 高麗때竹州、李朝에는竹山

現今의 竹山은 高句麗의 皆次山으로 新羅朝에는 介山이라稱하얏고 高麗初에는 竹州라 稱하야 成宗朝에 團練使를 置하엿다가 顯宗朝때에 이것을 廢하엿고 顯宗九年에 廣州로 移管하야 明宗二年에 監務를 置하엿다가 李朝太宗十三年에 竹山이라 稱하고 府使를 置하야 陰竹 陽智 安城等 隣接各郡의 行政 刑政을 儼然히 監督케되여 當時 竹山의 令名이 全國에 떨치엿든것이다 그러나 大正三年 郡廢合의 變換에 依하야 大局의 郡廢合이 斷行되자 安城郡으로 編入케 되엿다 아! 歷史의 反覆이여! 多端世事가 轉變無常함을 다시금 늣기게한다

名◇勝◇과◇古◇蹟
蒼苔낀古廓荒城 物換星移度幾秋
~斜陽歸客指點裡에 感懷만애오라지깁허

▲鳳德山城=竹山市場을 구버보고 屹然聳立한 飛鳳山의東走一脈이 天然奇勝을일운곳에 그山頂에는 蜿蜒數百間石築城址가 둘러잇고 城內의中央에는 古色蒼然한 一廟가잇스니 이것이 高麗高宗朝에 强敵蒙古兵을 討平한 宋文胄將軍의 忠魂을祭祀하는 곳이다 이에古記에依하건대 高麗高宗二十三年에 將軍이竹州防護別監이 되여잇든中 蒙古兵이來襲하면서 投降하기를勸하는지라 將軍이憤然함을참지 못하야 城中士卒을거느리고 一擧에擊破하엿드니 强暴한 蒙兵은 容易히解散치안코 十五日동안에 火砲等여러가지戰術로써 三次나來襲하엿스나 將軍은 일즉이 龜州에잇섯슴으로 蒙兵의攻城之術을 아는지라 막으며 또쫏니치는 將軍의 칼날아래 蒙兵의死者가 不可勝數이엿다 外敵을討平한偉勳으로써 當時左右衛大將軍을 拜命하엿든것이다 그런데 將軍이戰死하엿다는史料는 업슴으로 그것은 참으로痛恨事이다 그리하야 遺憾이 잇든것은 李朝末에이르기까지 每年九月九日에 竹山府使가 威儀를가추고 盛大한 祭典을奉行하여오드니 時代의變換으로因하야 이제는 所管竹面에서 祭典의儀式만은 아즉도끈치안코 擧行하는터이다 物換星移몃해이냐 허러진 城廓에 끼인蒼苔는 녜일을말하노는듯 오즉斜陽歸客의 感懷깁흔 指點을 바들뿐이다

▲七長寺=雄偉明麗한 七賢山靈海峰의聖姿는 네로부터 東方勝境이라고 指點하는곳이니 時序따라 奇花異草 四時長春의 蒼松綠竹 一草一木一土一石 그어느것이 一幅의 그림이아님이업거니와 더욱이 著名한 古刹 七長寺는 層巖이 四圍하고 洞壑이 深邃한데 曲澗淸流는 塵世俗念을씨서버리고 曉風에우는鐘聲은 亂麻의俗世를 警戒함이냐? 自然이 敬虔하고 淸閑한 늣김을가지게된다 이제七長寺를 史的으로考察하건대 同寺는 新羅古刹로서 島夷의兵火를바더 形骸조차 업서젓든것인데 距今九百餘年前 高麗顯宗時에 慧昭國師가 重建한것이다 慧昭國師는 本是安城人으로 高麗國師만이 아니라 또한宋朝의 國師로도 잇섯는데 그의道義와 德望에는 感化되지 안는 사람이업섯다 그中에도 白蓮花井에서 銀器를盜去한 白丁七人을 遷化시켜 七神將이된 까닭으로 因하야 山名을 七賢이라하고 寺名을 七長이라고한것이다 高麗文宗王의 四子인 大覺國師가 慧昭國師의 功業을讚揚하야 李門功業許誰同 千乘佛國 一句를 남기엇스나 當時國師의 遺德이 얼마나 놉핫든것을 後人으로하야금 能히推察케한다 李朝때勇將林巨正이가 天下大事를 經綸하고 同志를糾合할새 七長寺佛前에서七人의兄弟의 誼를맷고 平生苦樂을 盟誓하엿스니 林巨正亂의出發地도 亦是이곳이라고 할것이다 同寺에는 藏史庫가잇서서 高麗朝實錄을 一時이곳에 秘藏한 일이잇섯다 王朝末葉에 火災로 因하야 壯嚴美麗하던 建物과 秘한 書籍이며 여러가지重寶를 燒失시켯스니 이것은國家的損失이라고아니할수업다 그러나至今에도 大雄殿 佛殿等 十餘宇의 古建物과 舍利浮屠二十八坐는 古藝術朝鮮의 古代情趣를 자랑하고 萬古不變의 自然風物은 古今이 달음업시 이곳을 차저드는 騷人墨客을 煩惱케하야 詩가 되고 畫가 되엿스니 寺立三韓 嶋夢 山空明月落花魂 天下門外花三月 羅漢殿前竹四時等의 詩句는 이곳의 實情을 그대로 그려 노흔것이다 同寺碑殿廊압헤 쭈남어 부러진 碑石이 잇는데 이것은 壬辰亂때 加藤淸正이가 분지른것이라는 虛無한 傳說이 잇스나 이것은 無知한 農老樵夫들이 대중업시 직거리는말이다 可考할바업거니와 그碑가 부러진것은 石質이너머나 무거웟든 까닭이다 그리고住持孫海溟氏의努力으로冥府殿을새로히重修하야 더욱이鮮明한色彩가잇다.

▲馬耳山=一名 梅山 星實 鐵馬山城이니 海拔四百廿二米의 高嶽으로 一竹面金山里의主山이다 山上에는 將軍臺 烽火臺가잇서서 李朝末紀 甲午年까지는 烽火를 드리여 漢陽에 報하더니 廢止된後 古墟에는 荒草만 더퍼잇다

◇鳳德山城의遺墟

恨만흔過去 寒心한現狀
벙어리千年多感한述懷
宋文胄將軍夢見記

記者의 執筆一念이 헛되지아니하야 竹山의鐵干인 宋文胄將軍을뵈옵게 되엿다 金胄鐵甲에威風이 凜凜한데 八尺長身에 一丈鐵槍을 잡고 竹山의遠近景致를 구버보며 이리저리 徘徊하실제 往訪한記者와 視線이 마주치게 되엿다 恭遜이 拜하고 遠間의 安候를 물으매 그는 欣然한 顏色으로 古今이一般이요! 簡單히 말슴하고 將軍은 多感多恨하신듯 默然良久에 左手로 三角長鬚를 거사리고 무거운게입을 여시엿다 當時 恨만흔 高麗史와 半萬年의 長久한歷史를 마지막으로 끗막어노흔 李朝의興亡史는 단단하고 기막혀서 다만 늣기고 恨스러울 뿐이나 禁할수업사오이다 그리고竹山地方에서 이러난 義兵火等 여러가지慘劇과 血鬪는 竹山人間들이 꾸며노흔 悲慘劇은 一一이 明若觀火가 안일것은 아니라 旣往지나간 일이니 往事는 莫說하려니와 近來竹山市內에는 交通의 色素가 너머도컴고 냄새가 毒해서 一般들은 病者들입니다 傳染性을 가진체-人病患者들이니 모르는것이아닌체 못난것이 잘난체 똑똑한체 거룩한체 도잇는체 有識한체 이체저체해서 「체-人」字로만 籠을달엇스니 流行性체-人病이라고나 하여둘가요 더욱 可觀인것은 조고만地方에 派爭은 웨-그리 甚한일까? 이派에서는 저派를 攻擊하고 저派에서는 이派를誹謗하야 서로서로 으렁거리는냥은 참으로 눈허리가 시으시든 합니다 하도甚하기에 무슨特別한 因果가잇나 하고 理由를차저보앗스나 아무런端緖가보이지안습니다 아마도이亦是「체-人病」의 傳染으로써 못난것들이잘난체 하너라고 高書出鄕의 本色을 드러냄이 아닐는지? 가장 耕率하여야할 敎育機關에서부터 그따위일이 곤달어일어나지요 校長派, 敎員派가 서로갈이여서 罵罵詰詰를 續出하다가 結局은 애석하게도 犧牲者까지 내게되는同時 一時社會問題化하엿스니 얼마나 慨歎할일이겟소 近者竹山人間들은 돈이라면 더떠노코 눈이 빨가케 뒤집펴서 體面업시 날뛰는구려 詐欺取財, 不當取得은 오히려 말도말고 서로싸움질 서로訟事질 야단법석들입니다 可笑且歎할일이지요 업는놈의 膏血을 빠빠글거들이는 吸血鬼守錢奴들은 民族과社會가 於我何關이냐는듯이 그저 個人本位의 富益富만 生覺하는구려 貪財好色이란 부러단이는文字이지만 貪財도 程度가잇고 好色도程度가잇지요 이웃집 어린애들의 코묻은돈까지 글거모와가지고 新町遊廓인가? 此等事業을 호올로 즐기려는 沒廉恥이잇스니 그들의 一動一靜은 現代惡德 有産家들의 標本이 될것입니다 將來가엇지 되나 두고보자지요 數三年來 沈滯景氣의 餘澤으로 주머니구석이 묵직하니까 그저 한잔더기로만 일삼는지? 竹山, 注川은 말도말고 三竹가튼村구석에서도 色酒家 갈보等이 엇지그리 늘어갑니까요 사이는 밧작터 甚하여서 鬼哭聲가튼 노래가락과 어울이지안는 長鼓소리에 가끔가끔 단잠을 놀라깨입니다 또한가지우수운일은 交通이 便利하니 貨物이 豊富하니 하면서 지우수운일은 날뛰는 친구들도 만히 잇습니다 만흔 이것이 竹山人士의 努力으로써 된것이냐? 絶對로아니외다 모든것이 外來에서 今여드는他動의힘 그것뿐이외다 其實은 殷盛한物貨와 便利한交通을 利用하는 이조차 멋사람못됩니다 그리고 竹山公益事業家가 누구이며 公益事業을 하여노은것이 무엇이냐고 물을때마다 한가지도 對答할 材料가업습니다 겨우 慈善家 몃분이잇는것 外에 아즉까지 記憶에 남어잇는것은 年前에업서진 農友學院과 東平簡易校의前身인 東平講習所와 一竹面 和谷講習所等 몃개의 初等敎養機關이 本地方의代表的 社會事業의 面貌일것이니 참으로 痛恨事입니다 世上이 하도말성이요 人心이 하도야 박한지라 귀먹은체 눈어둔체 벙어리체 못생긴체 이러케 四체-人主義를 가지고 오다가 特히이번에 朝鮮日報竹山紹介版을通해서 所感의 一端을 말하엿슬뿐이외다

말이맛추자 將軍은 城廓에 자취를 감추엇다 저즌 長劍을 다시금힘잇게 잡은 雞鳴一聲에 소스라처 잠을깨니때는 十二月二十五日밤세時頃 朔風은蕭蕭하고落木은紛紛할뿐!

勤儉貯蓄으로成家 慈善에德望까지
竹山의元老 梁在元氏

氏는 當年六十一歲의老齡이니 天性이 本是淳厚仁慈하며 勇敢正大하야 八十老母에게 極히孝養하고 弱冠으로부터 農商業에 從事하야 勤儉貯蓄함으로 竹山의 一流財產家를 일우고 公職으로는 竹山公普校學務委員 學校評議員 二竹面協議員 竹山消組頭 竹山文廟直員等 要職을歷任하얏섯고 慈善心이 豊富하야 元生長地인 二竹面龍古里一同에 戶稅를 數次代納하고 殺戚과小作人間에 困窮한者를 도아주엇고 頌德碑를 竪立키로 準備中 當局에서는 各里有志와 協議하야 頌德碑를 竪立키로 學藝를 作人間에 國家處理함으로 頌德碑 四十歲에 어던고 竹山으로 移住한後來 洞里를 爲하야 農事를 작만하야주고 面內八百五十餘戶에 戶稅八百餘圓을 代納하얏으며 年末을當하야 나무장사까지도 錢米間 만흔同情이 잇서스며 其外一般公益事業으로 於公於私에 數千金을特志하야 오든중 今年은 氏의回甲임으로 宴費, 除廢하고 面民農資金、親戚救濟金으로 三千百圓을 喜捨하얏고 今年竹山牛市場設置함에 對하야도 現時期成會長이니만치 陰으로陽으로 勞力運動이 不少할뿐만 안이라 一般功績이 莫大함으로 二竹面이라하며 老境에 至하야는 張子台錫에게 家事全權을 一任하얏스니 合錫君은 接濟事物에 圓滿處理하고 明敏活潑함으로 氏는家業에 關係치안코 三婦九男을두고 春京秋鄉에 閑雲野鶴으로 消遙하고잇다
◇寫眞은 梁在元氏

만 욱어저잇슬뿐이다 古史를一一히 認記키難하거니와 古來하는傳說에 依하면『베말바』이라는 馬耳山에는 베말바가튼 靈岩이소사잇고 東으로十里許 林島山에는 공개바위가 잇서서 每年正月十五日밤이되면 天上의 麻姑할미가 牽牛織女를데리고 下降하야 베를 짠다고한다 그리고이山에는 特產物로 九節草라는 藥草가잇서서 婦人病에 더욱이有効하다하야 每年九月이면 採藥客이 遠近하야 人山人海를일우고잇다

▲林慶業修業地=一竹面花臺里 大師谷(대사골)이란 村落은 郭先生(司文)의遺址이다 仁祖때 三國名將으로 威名을 떨치든 林慶業將軍이 少時에 忠州達川에서 朝往暮歸로 先生에게와서 書劍을修業한곳이다 이와가티 百里遠程을 每日來往한것은 馬耳山上峰에 잇는 將軍水를 朝夕으로 마신까닭이라고한다

▲國師峰=三竹面中部를貫流한高山이니 海拔四百三十六米다 七長寺를 重建한 慧昭國師가 本是白城人으로 이山中에서 暫時 隱居하엿슴으로 後人이 國師峰이라稱하엿다

慈善事業家 孫奎彩氏

竹山의 慈善事業家를 말할때는 누구나 一竹面芳草里孫奎彩氏를指稱하게된다 寬厚正直한氏의 天性은 一般의 規範이되고 慈情에서 우러나오는 慈善心은 景仰의 的이되다 氏는 多年間面協議員 區長等公職을 歷任하면서 生活改善과 美風助長의 敎化事業에努力하는 一方 特히그洞里貧民救濟에는 온갓 心血을 밧처오는터이니 農資調達 公稅代納 肥料斡旋等을 年中行事로하며 每年歲時에 老人에게는 酒肉, 貧民에게는 錢米等을 配給하야왓스며 그리하야 凋殘하던 그洞里八十餘戶가 이제에는 安堵樂業의平和를 엇게되엿스므로 感服된一洞全部가 數年前에 氏의頌德碑를 竪立하엿다 더욱이農事改良 勤儉貯蓄 婦人屋外勞働等을 積極的으로 獎勵하야 附近地方에서도 漸次模範케 되엿으니 農業朝鮮에 잇서서 氏의功績이 얼마나 多大할을 누구나 推察케될것이다。

模範的事業家 徐鍾殷氏

氏는 當年四十一歲의 壯年이니 天性이 淳厚鄭重하며 現時 一竹面 唐村里區長 面協議員 竹山公普校學務委員等 公職을 가지고 育英事業에 만흔 努力을 하여오는中 그의功績을 一一히 枚擧키 未遑하거니와 至今으로부터 十三年前인 大正十一年洪水로 因하야 全洞里에 家屋이 거의 全部 崩潰되고 農作物의 被害는 形言할수 업섯다 當時 氏도 被害者의 一人이면서 餘力을 다하야 一方으로는 救濟에 努力하며 一方으로는 堤防을 完築하야 百年大計의 功績을 남기엇다 그리고 가장心血을 밧치는事業은 農事改良 副業獎勵 勤儉力行 共同耕作 互相扶助等良風美俗을 助長하야온 結果 그洞里二十餘戶가 名實相符한 更生部落이 되엿스니 這間氏의 苦心白熱이 果然어떠하얏스랴 一般人士의 讚揚이 도한 籍籍하다
◇寫眞―崔昌善氏

厚溫恭 勤儉謙愼하며 抱負가 卓越하고 技術이 非凡함으로 自然이 斯界에 信賴를 밧게되엿고 接濟事物에 圓滿處理함으로 一般人士의 讚揚이 또한 籍籍하다

多角的實業家 吳靖煥氏

氏는 三竹面龍月里 區長 面協議員 學務委員等公職을 歷任하고 잇서서 公務에 忠實할뿐아니라 素性이 快活明敏하고 勤勉力行하는 多角的實業家이다 일즉부터 農業에 注力하야 年三十枚의 產繭을 生產하는 郡內有數한 養蠶家이다 數年前에는 機業專習所를 設置하야 그洞里婦女에게 有利한職業을 주엇스며 昭和五年에 龍月停留場이 設置된것도 專혀氏의 活動結果이다
◇寫眞……吳靖煥氏

醫療界의彗星
公醫 崔昌善氏

氏는 當年三十五歲의壯年이니 일즉이 京城醫專을 優秀한成績으로 卒業하고 陰城、槐山、長湍等各地에서 多年間公醫로歷任하다가 昭和九年九月卅日에 當地에赴任한以來 一般患者에게도 風雪을 不拘하고 親切히 往診하며 極貧患者에게는 無料治療하는터이니 氏는 直接間接으로 刀圭界의恩人이되다 天性이 溫

文學研究家 趙國元氏

山明水麗하고 松林이 蒼鬱한三竹面東平里는 氏의居鄕이다 氏는立志의 靑年으로서 柔性이 寬明深奧하고 溫良恭儉하야 深遠한抱負와 灑落한胸衿은 文士의 風度가잇다 일즉부터 文學을研究하야 올뿐이요 現社會의 人間의 苦心白熱이 ……

謹告

이번 紹介版發行에 際하야 物心兩面으로 積極愛護하야주신 各界諸彦께 먼저 感謝하야 마지안슴이다 뭇은史跡 새事實드르대로 본대로 늣긴대로 各界各形을 대강紹介하여사 오나紙面關係로因하야 一一히 揭載치못한中에도 特히敎育 宗敎團體狀況 衛生施設等 重要한事項과 其他篤志家의 빗나는事業을 아즉다紹介치못한것은 遺憾千萬입니다 그러나 明春을期하야 또다시 第二紹介版을 斷然續刊키로 計劃이 確立되엿스므로今番에 未備한點은 모다다음機會로 미루오니 特히照亮하시고압으로더만흔 指導가잇어주시기를빌고거듭바라나이다

朝鮮日報竹山支局

一竹面長 李容鎭氏

全郡內에 面長을말하게 될때는 一竹面長은 事業面長이라는 評을 밧게되는터이니 이것이 偶然한일이 안이다 氏는 十三年동안 面長으로 잇스면서 地方發展을 爲하여 健鬪하여오는 까닭이다 氏는性格이 毅勇正大하야 於公於私에 處理圓滿한中 六尺長身의 半白長鬚는 可謂長者의風이잇다 그리하야 各界에 信望이 놉흐므로 注川農商組合 竹山金融組合監査等의 公職을띄고잇다。
은 머지안흔 將來에 光輝잇는 功勳이 잇슬것을 預期하는바이다。
◇寫眞…尹在政氏

漢藥界의重鎭 李鳳載氏

氏는 安一藥房主人公이니 根性이淳厚公正하고 圓滿無方하야 性格부터 刀圭界에適任일뿐아니라 深奧한抱負와 非凡한才藝는 自然이 醫藥界에 名聲을 날리고 잇으며 業績이 날노繁昌되는터이다 氏의先人愚堂公은 學文이卓越하얏고 斯界에 高明하엿스며 現在長湖院에서 開業하고잇는 氏의伯兄인李綸載氏도 또한 斯界에 宗匠이니 龍生龍鳳生鳳으로 氏의家門은 傳統的醫藥家이다。
◇寫眞……李鳳載氏

商業界의梟雄 尹在政氏

氏는 當年三十歲의 有爲靑年이요 信興商店主人公이다 商業界에 元老인尹完熙氏의長子로서 일즉이 竹山公普校를 卒業하고 京城에서 修學하다가 家事의羈絆으로 故鄕인竹山에 도라와서 十七歲부터 商業에從事하야 勇躍邁進한結果 商況이 逐日發展되여 注川 廣惠院等附近市場에 支店을設置하고 內容外華가具備하야 竹山商界에 堂堂한覇權을 가지고잇다 氏는 天性이本是明敏溫恭하며 與人交際에 親切可嘉할뿐만 안이라 偉大한事業熱을 가지고잇는 內心의潛在意識이 公職을 希望치안코 逃世隱居하야 우으로 八十老親에게 甘旨를 供養하며 各種花草를 栽培하야 萬卷書籍을 精讀함으로 生計를 삼어 林皐에 消遙하는 氏의 潛在한意識은 將來의 偉大한事業을 經綸할 隱文士이라고한다。

各面各邑踏查實記

▲注川市場=注川市場은 一竹面中央에잇는 알뜰한市場이다 竹山과 長湖院을 連絡하는 汽車 自動車交通이 便利하고 鐵城三成面街道가 開通되야 더욱 이 進展의 勢를 가지고잇다 그러나 다만 通信機關업는것은 遺憾中遺憾!

▲注川農商組合=注川農商組合은 昭和二年에 創立以來 數萬圓의 基金으로 一般農商工業者에게 資金을 融通하며 一方으로는 低價로 販賣提供하는터이니 當組合의 創立初부터 勤務하는 安鍾學氏의 功勞가 만타하는 그리고 現組合長 全錫俊、副組合長李思懸、理事徐丙玉、監查郭大鎭諸氏의 勞力이 또한不少하다!

▲梅山敬老會=二竹面梅山里上九山、下九山七十一戶에서 昭和七年度에 組織된 敬老會는 同里有志朴榮根、尹大林、朴漢應、李泰夏、李鍾三諸氏의 勞力으로되엿는데 基金이 約二百圓이라 하며 해마다 春秋日暖하야 꼿필때를 擇하야 會員一同은 酒食을 만히작만하야가지고 梅山公園에서 同里老人에게 供饗하며 快樂하고 圓滿한중에서 式을마친다는데 一般有子孫된者로하야금 感謝됨이 만타고!

▲雪田婦人團=一竹面村里雪田部落에서는 同里區長徐鍾殷氏의 指導下에서 婦人團을 昭和八年度부터 組織하얏는데 每日朝夕으로 每人分粒米를 貯蓄하고 一方으로는 農作을 經營하야 收入한것을 合하야 白米十二石 時價約三百六十餘圓에 達한다

▲加覩治道=三竹面排谷里와 加覩里中間에 노여잇는 峴嶺險惡은 一般行人에게 苦痛이 될뿐아니라 商業振興 文化向上에 行政上에도 不少한 障碍가 되고잇슴으로 이에多大한 關心을가지고오든 三竹面長 閔泳寬氏는 年度에 期於히 開通하엿스므로 一般은 不少한 物資까지 擔任하야 昨年은 一面의 經濟로서 三竹面長의 功勞를 讚揚한다고

▲城南簡易學校=三竹面斗峴、唐木、七長里 三百餘戶에서는 簡易校期成會를 組織하고 多方面으로 必死的活動한結果 明年四月一日에는 開校키로 萬般의 準備가 完了되는터인데 陰城郡三成面上谷里事業家閔光植氏의 喜捨한三百圓金은 學餘甘雨로 一般의稱頌이 多大하며 前記三個里一帶는 交通이 不便한關係上 一般學兒童에게 苦痛이 不少하든터에 學路의 曙光을 보게되엿다

▲竹山米穀商界=當地方은 穀物集散地이니 만큼 大財閥家로 投資하야 經營하는 竹山商會 東信商會를 비롯하야 竹山의 世昌商會 李秀赫、權興益諸氏와 注川의 李思懸 金聲振、孫興燦 金東植 全錫哲 李禎求諸氏가 多方活動하는터인데 前年에 比하야 今年에는 檢查가 太甚하고 競爭的 關係로 損失을 보게되여 小資本家는 그만 休業하엿다하니 참으로可惜할뿐!

▲竹山牛市場=竹山牛市場은 期成會를 組織하고 略十個月間을 두고 多方面으로 努力運動한 結果 今年五月五日부터 市日를 變更하고 牛市場을 設置하야 不意의 大盛況을 보게되엿은 期成會長梁在元 中野繁一 委員李象被 尹學燕 尹炳燮 馬鶴基 李輔宜 李相哲 方起燮 須須木 高野諸氏의 努力이 적지 大하며 當地李面長과 楯本部長 兩巡査의 功力이 實上 不少하얏다고한다。

委員諸氏의 犧牲的結晶과 二竹面長李泰夏氏의 活動努力도 不少하다고!

京南線竹山驛前 伊勢酒 製造元 穀物貿易　竹山釀造場　主 梁

竹山商會

三竹面長 閔泳寬　書記 崔 舜

二竹面長 李泰榮　職員 一同

一竹面長 李容鎭　書記 尹 安　會計 鍾泳 玉玨

一竹警察官駐在所

二竹警察官駐在所

竹山消防組　竹山消防組頭 方起泰

竹山公醫 崔昌善

司法書士 李相哲

一竹面佳里 上佳里 一同　下佳里 一同

一竹面花鳳里 有志 梁基璦

二竹面唐木里 區長 韓宅洙

三竹面內長里 面協議員 金在玉

一竹面菱菊里 有志 韓澤愚

一竹面金山里 尹泳哲

三竹面栗谷里 李商稙

二竹面斗峴里 農村振興會長 趙基元

二竹面竹山里 有志 梁源植

二竹面七長里 區長 閔廷植

一竹面金山里 金錫兆

一竹面注川里 注川農商組合 振替京城二三〇四二番

京南線竹山驛前 穀物貿易 東信商會 主 鄭東秀

京南線竹山驛前 海昌洋服店 主 金海濟

京南線竹山驛前 穀物貿易 世昌商會

注川市場 注川釀造場 主 閔泳昌

京南線竹山驛前 海陸物產 都散賣 廣潤商店 主 李象載

京南線注川市 穀物貿易 共益商會 全錫哲 高昌述 李敬來

京南線注川驛前 穀物貿易 三興商會 主 孫觀榮

京南線注川驛前 注川穀物商會 李思懸 鄭寬變

京南線注川驛前 穀物貿易 三成商會

京南線注川驛前 穀物商 李禎求

京南線注川市 淸渼館 中華料理店 主 金成弼

朝鮮米肥日報京南支局 支局長 李範默

京南線竹山驛前 信興商店 主 本店 尹在政 支店 廣惠院市 注川市

三竹面內長里 篤志家 李濟鎬

米穀、肥料、酒類、石油、金物、建築物、海陸物產、セメント 都散賣 貨物用トラシク部 梁斗錫商店 京南線竹山驛前

七賢山七長寺

七長寺 主持 孫逸海

京南線竹山市 料理 元組 友成館 主 洪 李

親切 精潔 竹山旅館 主 宋占順

海東館 主 申 李 李桂七

京南線注川市 中華料理 淸香館 主 崔安文車 一玉 心花朱

京南線龍月里驛前 富國徵兵保險相互會社中鮮事務所 主任 吳淸煥 總務 兪炳學 監事 崔鍾載 參事 李容鎬 朴勝海 同 注川支所長 朴在華

一竹面山北里 竹山文廟直員 兪熙濬

竹山金融組合 理事 周藤孝俊 職員 一同

京南木工所 南廷鎬

穀物商 李寧善

三竹面竹山里 振興會長 方學熙 尹起燮

二竹面斗峴里 振興會長 金俊培 李康元

一竹面和谷里 振興會長 徐泰河

二竹面長峴里 區長 沈 赫 河

二竹面斗峴里 鄭周鎔

二竹面佳里 朴容台

三竹面龍月里 崔載成

三竹面德山里 張容瓚

二竹面長院里 無名氏

二竹面竹山里 區長 尹炳燮

一竹面金山里 振興會長 尹泳夏

三竹面栗谷里 區長 兪大濬

一竹面古銀里 面協議員 辛光善

一竹面花鳳里 面協議員 徐丙玉

一竹面竹林里 洪承煥

一竹面注川里 孫龍吉

二竹面長院里 區長 宋柱國

二竹面斗橋里 振興會長 柳根奭 安七善

一竹面古銀里 學校評議員 安秉哲

二竹面竹山里 沈鼎來

竹山興業組合 組合長 梁斗錫 副組合長 尹在致 監查 李鍾哲 安鍾玉 書記 朴漢朝

二竹面唐木里 朴濟成

一竹面注川市 漢南旅館 主 朴漢弘

蓬萊旅館 主 李春 佑 李 天 堂 藥房 思哲

京南線竹山驛前 穀物貿易 明信商會 主 鄭明淑

時計 貴金屬 蓄音器 レコード 修理販賣 金成堂時計店 主 金鎭虎

蔘茸 有名藥材 唐草 都散賣 普成堂乾材局 姜弼秀

昌信商店 韓相奎

竹山驛前 飲食店 主 安順興

壽春堂藥房 金鎬澄

藥種 貿易 永昌堂藥房 金容福

京南線注川驛前 金復鎬

一竹面松川里 宋寬淳

一竹面山北里 區長 高演 崔致炳 鴻詰

三竹面內長里 振興會長 崔 朴漢秉 鍾基

二竹面斗橋里 尹慎仁 國化

二竹面唐木里 振興會長 崔 漢 鳳翔

一竹面唐村里 振興會長 朴炳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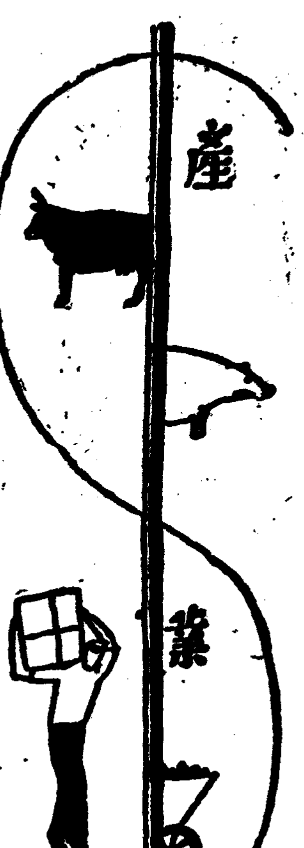
三竹面德山里 區長 金晶圭

利川郡栗面本竹里 金俊鎬

三竹面栗谷里 振興會長 李鍾榮

一竹面花鳳里 孫炳文

二竹面梅山里 會長 尹大林 區長 朴榮根 朴漢應 李漢夏 李泰三 徐鍾萬 金順鉉 吳俊泳 黃晉基 尹範玉 全尙善 慶 姜信孝 宋永錫 朴大圭 李承武 李恩



今年鰛粕生産 一百七十五萬俵

賣殘物乾燥不能으로精製延期

三月까지의賣物缺乏

東海岸의 鰛漁는 江原道의一部를 除하고는 거의 終熄되엇는바 今年의 鰛粕生産高는 咸北七十五萬俵、咸南四十萬俵、江原四十五萬俵、慶尙北十萬俵 合計百七十五萬俵가량인데 그中에서 賣却又는 賣約濟의것은 約百二十萬俵로 남어지 四十五萬俵는 咸南北을 中心으로各道共히 氣候關係로 乾燥不能하야 來春까지 精製를 延期하기로 되엇다 따라 三月物의 賣物이 缺乏되어 市勢는 目下神戶沖一月物 三圓六十錢 一月物三圓六十五錢을唱하고잇다

"鰛"豊漁로 新記錄豫想

殖産局長報告內容

預金、貸出 모다 稀有의 大膨脹을 繼續하야 金融界는 繁忙裡에 越年하게되엇는바 當期의 銀行界에 對하야 理財當局에서는 다음과가티 말한다

今期에 入하여서는 米資를 비롯하야 金利는 全般的으로 低下하야 이點으로보면 銀行經營은 困難을加하게되엇스나 反面 事業景氣米高等으로 貸出計數는 稀有의 膨脹을 示하게되엇슴으로 銀行의 當期利益은 計數로 前期와大差가업고 오히려 好轉하고잇스며 屢顧하야 不良資産의 淘汰를 行하고잇는데 今年에入하야 不動産價格의 騰貴와右에對한 當局의 整理慫慂은 不良部分을 거의淨化하얏다 地方各行中有力한 數行에는 强硬한增配要望도잇고 內容도 良好한것이잇스나 當期도繼續하야 配當은 大體據置하야 內容好化를 圖할 意向이다

利川棉花共販 十三萬二千町

【利川】利川郡은 朝鮮中部에位하야 氣候가溫和하고 耕地도大體로 平坦하야 農事하는데 凶豊의差가比較的少하고 土質은 花崗岩의崩壞로形成된 砂質壤土가多하야 作物生育에 適當하며 特히 棉作의 適地로서 그將來가 자못 屬望되고 잇는데 今年은 氣候의 順調로 棉豊이어서 棉花共販出廻도 旺盛하야 二十五日까지四拾九萬七千四百參拾九斤出의荷量을 보게되엇고 昨年同期보다 約四倍以上의 增加를示한바 共販總額은 實로八萬三千餘圓이라하며 棉作肥料代金은 一萬四千五百五十三圓에 達하엿다한다 이제그內容을보면 如左하다

種目	前年	今年
播種面積	[illegible]	[illegible]
繰綿生産高	[illegible]斤	[illegible]斤
出荷數量	[illegible]斤	[illegible]斤
平均單價	[illegible]	[illegible]
共販總額	[illegible]	[illegible]

鱈魚도 方向轉換

鎭海灣內極凶漁

六十餘漁場打擊莫大

【統營】鎭海灣鱈魚漁業은 過去에 年産額 七、八萬圓을 突破하든것이 近年에는 凶漁를 거듭하야 客冬에는 三十萬圓 內外의 産額에 不過하얏스므로 一般經濟界 特히 朝鮮人 經濟界에 밋치는바 影響이 莫大하야 悲慘한 光景이 續出되고 鱈漁業全滅의 危機까지 聯想하게되엇는데 그만치 今年冬期의 同漁業의盛衰에 一般의 關心이 集中되여잇는터에 去十一月中旬부터 漁撈가始作되엇以來 寒天이繼續되어 今冬은 豊漁를 豫想되든바 例年갓트면 鱈魚群이 十二月初中旬에 鎭海灣內에서 龍南、光道及固城郡沿岸을 通過하야 下旬에 巨濟島의 河淸、沙等地方面으로 移動하든것이 今年에는 例年의 逆進路를 取하야 今月初旬부터 意外에 河淸、沙等近海一帶漁場에 鱈群이出現하야各漁場에 豊漁의소리가 놉하가나 所謂前記鎭海灣 六十餘個所漁場에는 鱈群의그림자조차보지안는다하야 悲劇을演出하는現象으로 이것은同漁業界의 數年來의 奇現象이라하며 今年에도 一般으로보아 豊漁는되지못할것이라하야 各方面에서 憂慮中이라한다

幸도 오늘뿐·나는듯시 팔리는果物 【南大門市場所見】

今年對外貿易 各地모다激增

大藏省發表槪算內容

【東京電話聯合】大藏省發表 今年一月以後 十二月二十五日까지의 日本 對外貿易槪算은 如左하다 (單位千圓)

▲日本內地

	(十二月二十五日現在)	前年同期比較增額
輸出	二、四七〇、五九九	三六九、九六三
		(一割五分六厘)
輸入	二、四四〇、七〇七	二二五、六〇六
		(九步八厘)
合計	四、九〇一、三〇六	五九五、五六九
		(一割二分六厘)
出超	二九、八九二	前年入超

▲日本內地及外地別

	(昭和十年)	(昭和九年)
輸出 日本內地	二、四七〇、五九九	二、一〇七、五八六
朝鮮	[illegible]	[illegible]
臺灣	[illegible]	[illegible]
合計	二、四五七、六二六	二、一九九、四四五
輸入 日本內地	二、四四〇、七〇七	二、二〇九、一〇一
朝鮮	[illegible]	[illegible]
臺灣	[illegible]	[illegible]
合計	二、五九八、七七三	二、三三三、〇三三
出超	三一、八九二	九一、五五五

外地米生産費 一月中旬查定

朝鮮도集計終了

九年度의 米穀生産費調査會는 드되어 龍頭蛇尾의 結論으로되어 散會하야 同調査會는 廢止되엇는바 十年度는 自治管理案施行上 이調査는 必要함으로 이미 調査集計를 맛친 各外地資料를 東京에 가지고와 事務的查定에 依하야 各生産費를 決定하기로 되어 右協議會는 明年一月中旬 東京에서農林、拓務及朝鮮、臺灣兩當局이會合한후 協議하기로되엇다 總督府로부터도 山澤、石塚兩氏가 列席할豫定이다 十年度 朝鮮米生産費는十二日上旬부터集計中인데이지음各集計를맛치어明年初最終決論을엇게될터이다

朝銀、中銀間 利子의協定

定期는六分五厘 其他는近近協議

【新京發】朝鮮銀行 中國銀行의 協定에 依한 六個月以上의 定期預金利子는 年六分五厘로 明年부터 實施하기로 되엇는데 其他 預金、貸出의 利子는 近近新京에서 行하는 朝鮮銀行과、中國銀行과의 協定에依하야 確立하기로 되엇는바 貸出에잇서서는 日本人 滿洲人 間 信用의 程度에 依하야 利子協定은 不可能하리라하나 預金利子에 잇서서는 金票上 國幣에 依하야 利子에 差異를 附할는지 안할는지가 主要問題이며 朝鮮銀行側에서는 同等利子를 主張하고잇스며 財政部 中銀當局에서는 如何한 方針으로 나갈는지 一般의 注目을 끈다고 한다

事業發電所 來春再入札

朝鮮電力의 事業發電所土木工事는 二十七日 大阪에서 請負入札에附한바 豫算超過가되어 이를마감하고 日鐵系分을加味하야 配當實行하기로 方針을 決定하얏다 이結果 그配當은日本內地 三萬八千、滿洲一萬二千으로되엇다

約九倍에 達하얏슴으로 原則으로 小口優待의 來春再入札에 附하기로되엇다한다 그리고 指命入札者는 間組、大林組、淸水組大倉組의 四組라한다

本內地增資 三十三萬九千 三百株 合計 四十四萬六千四十株에 達하야 賣出의 五萬株에 對하야

明年初市勢豫想 懸賞募集

初立會

朝取期米 三月限 ......
朝新株 朝取新株 ......
東新株 同 上

品 賞
一等 十圓
二等 五圓
三等 朝鮮日報一個年 ......

▲締切=明年一月二日本社到着에限함
▲發表=明年一月八日
▲注意=住所姓名을明記하야 「朝鮮日報 經濟部」로 보내고用紙는葉書로一人一張에限함
當中者가多數일때는抽籤

京城太平通一丁目
朝鮮日報社

綜合經營前提로 全滿鐵運賃改正

明二月一日부터實施

【奉天廿八日發電通】全滿洲鐵道綜合經營의 前提인 滿鐵社線及滿洲國鐵線 貨物運賃과 國鐵旅客運賃의 劃期的改正은 廿八日午前十時 奉天、大連、新京、東京各地에서 一齊히 發表되엇다 今番의 改正은 事變後의 滿洲新事態에 則하게하는것으로 實施期는 舊正의 取引閑散期인 二月一日부터이라하며 改正要綱은 左와如하다

一、普通運賃 國鐵은 三地帶로 나누어잇는 運賃을 最低率의 京圖線地帶에基準하야 統一改正하며 滿鐵社線은 遠距離遞減制를 採用하고 社線은 現行四等級制를 國鐵의 六等級制로 統一하야 遠距離遞減率을增大함

二、特定及割引運賃 奧地開發特定運賃을 設定하야 一般特定及 特約運賃을 必要에應하야 改廢함

三、料金 各種手數料를 全面的으로 遞減合理化함

四、運賃及料金規則 荷主及從事員의 取扱便宜를 主眼으로하야 社、國兩線同一規則을 採用하며 隣接鐵道와의 協調方針下에 內容의 整備改訂을行함

五、貨物等級表의 改正、取扱의 簡易化와 荷主의 利便을 圖하야 社、國兩線單一等級表를 採用함

金電第三發電所 明年九月에完成

金剛山電氣鐵道會社에서 目下工事中의 第三水力 發電所는 順調로 工事가 進捗되고 잇는데 來年九月까지에는 竣功되야 그가 完成되면 現在의 發電能力 一萬키로를 倂하야 一萬三千六百키로가 되리라한다

產業開發이目標

全滿鐵道運賃改正은

輕減額五百六十萬圓

【奉天二十一日發電通】滿鐵社線 滿洲國鐵線의 運賃 改正目標는 一、滿鐵、國鐵運賃機構의 可及的統一 二、滿洲國産業 就中 北滿開發을 目標로하는 國鐵線貨物運賃의 改正、三、社線運賃、及 料金의 合理化의 三點에 置하야 新運賃率이 制定되엇다 이 結果 運賃料金의 負擔輕減額은 社、國線을 通하야 年額五百六十萬圓 特히 國鐵線은 年額五百萬圓의 運賃遞減을 斷行하고 도重要物産品에 對하야서는 兩線을 合하야 四百五十萬圓을 遞減하게되엇다

羅津港에 海事出張所

一月一日부터開設

羅津港은 去十月 第一期工事의 一部가 完成되야 一個年에 百萬噸의 貨物을 取扱하게되엇슴으로 遞信局에서는 十一年一月一日부터 羅津에 海事出張所를 開設하게되엇다한다

貿易協會의 明年度計畫

朝鮮貿易協會에서 來年度의 事業計畫으로 考案하고잇는것은 安東出張所는 從來關稅事務만 取扱하든것을 滿洲國이 來年度에는 大連、哈爾賓、新京、奉天에도 設置하기로되얏기때문에 安東出張所는 그必要를 認하지 안케되엇슴으로 그代身 大連及北中方面의 開拓에 努力하리라하며當分間 大連에 그機關을設置하고 將來는北中方面에 延長하리라한다 또北朝鮮方面의 進展에 따라 來年度內에는 哈爾賓에도 出張所를 設置할必要가 잇다하야 이設置를 考慮中이라한다

撫順叺統制

一月七日부터施行

【撫順】旣報 撫順金融會의 叺生産品統制는 來一月七日부터施行케되엇는데 一個月六回式 每月二日 七日 十二日 十七日 二十二日 二十七日을 叺購入日로 定하고 定期的으로 每五日에一次式 檢査를施行하여 購入하리라는데 其購入標準價格은 다음과 가티決定되엇다고한다

一等叺一枚	二十一錢
二等叺一枚	十八錢
等外叺一枚	十五錢
不合格叺一枚	十錢

今議會에提案될 自動車法案骨子

【東京電話聯合】商工省은 國防上、産業上의 見地에서 關係各省協議會의 決定에 基하야 國産自動車工業의 發達을 圖키爲하야 自動車製造法案要項을 第六十八議會에 提案코저 二十七日 省議를 開하고 如左히 法案骨子를 決定하얏다

▲許可制

一、自動車의 製造를하려는者는 命令의 定하는바에依하야 主務大臣의 許可를 受할것、許可를 受할 事業은 定成車部分品으로 그基準은 六千輛以上일것

一、本法에依한 自動車製造會社는 決議權의 過半數가 日本國民 又는 日本法令에依하야 設立하얏슬것

▲統制規定

産業上 國防上必要가 잇는때는 主務大臣은 價格의 變更 設備의 改良에 對하야 命令을 發할이잇는것

▲外國車防遏策

國産事業保護를 爲하야 主務大臣이必要라고 認하는時는 適當한 處置를 講함

商況 (三十日)

◆海外經濟◆

倫敦金塊	七磅〇志一片

◆對外爲替◆

對米	二八弗四分三
對英	一志二片

◆海外砂糖◆

玖瑪實糖	二仙三〇
咭爪十二月	[illegible]
倫敦十二月	六志七片

倫敦銀塊	一錢低
米棉	[illegible]
印棉	[illegible]
스털	四六弗二分一
아나콘다	二八弗二分一
米日爲替	二八弗八五仙
英米爲替	四弗九三仙六分五
紐育銀塊	[illegible]

鑛業權設定·移動

◇鑛業權設定

登錄番號	鑛種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二四九八	高嶺土	全南珍島郡鳥島面	十二月七日	木浦府竹洞 代表者 長城郡長城面 張奉鉉 金祚
二五〇〇	金銀鑛	全北完州郡伊東面雨田面	同	井邑郡北面 林鍾球
二五〇一	同	平北定州郡玉泉面	同九日	京城府黃金町 李奉吉
二五〇二	同	黃海海州郡東雲面 平山郡龍山面	同	延白郡石山面 代表者 李鍾惠 同海月面 李鍾高
二五〇三	同	忠南扶餘郡石城面 扶餘面	同	扶餘郡恩山面 三宅信雄
二五〇四	同	平北宣川郡山面 龜城郡梨峴面、沙器面	同	平壤府鹽店里 代表者 鐵山郡站面 金德三 龜城郡梨峴面 韓昌賢 金允文
二五〇五	鐵鑛	全南務安郡黑山面	同	東京市京橋區 昭和鑛業株式會社
二五〇六	金銀鑛	慶北達城郡瑜伽面	同	密陽郡下南面 代表者 曹斗允 昌寧郡昌寧面 金斗實
二五〇七	同	京畿利川郡麻長面	同	龍仁郡遠三面 代表者 李鳴世 同 李範達 同 李升世 同 李安夏 同 李源夏
二五〇八	砂金	忠北永同郡梅谷面	同	東京市麻布區 平木臨治
二五〇九	金銀鑛	忠南天安郡笠場面	同	牙山郡鹽峙面 代表者 李崇烈 靑陽郡靑陽面 徐相吉
二五一〇	金銀銅鑛	黃海谷山郡花村面	同	京城府寬勳洞 金熙善
二五一一	金銀鑛	全南光州郡河南面 長城郡南面	同	任實郡靑雄面 代表者 全完淳 同 全兌淳 同 全鶴淳
二五一二	黑鉛	咸北明川郡上古面	同 十日	淸津府朝日町 四元嘉平次
二五一三	金銀鑛	全北錦山郡南二面 珍山面、錦山面	同	論山郡連山面 代表者 金容斗 益山郡龍安面 姜道常
二五一四	金銀鉛鑛	平北朔州郡水豊面	同十一日	京城府淸進町 代表者 閔丙德 同 白南化
二五一五	金銀鑛	忠南唐津郡沔川面 順城面、合德面	同	禮山郡禮山面 代表者 柿內惠次郎 同 瀨戶口佐八 同 梁泰石
二五一六	同	忠南靑陽郡大峙面、公州郡新下面	同	靑陽郡化城面 代表者 林英憲 同 李元植 同 李昌[illegible]
二五一七	金銀鑛	平南寧遠郡小白面	同	咸興府住吉町 代表者 [illegible]
二五一八	金銀鑛	黃海[illegible]郡[illegible]面	同十二日	京城府[illegible] 鄭實基
二五一九	金銀鑛 化鑛	江原金化郡任南面 通溝面	同	同[illegible] 朴春寧
二五二〇	金銀鑛	全北扶安郡扶寧面 幸安面	同	論山郡江景邑 吉武六藏
二五二一	金銀鉛鑛	江原[illegible]郡[illegible]面	同	京城府[illegible] 代表者 [illegible]

◇鑛業權移轉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一五〇〇	咸南長津郡上南面	十二月四日	咸興府黃金町 代表者 永興郡順寧面 朴富德 徐秉根
八〇一八	京畿楊平郡江上面	同 五日	京城府昌成洞 閔圭植
八九九五	平南成川郡崇仁面	同	平壤府鹽店里 代表者 開城府西本町 朴明心
一〇七八九	咸南端川郡水下面	同	東京市麴町區 極東鑛山株式會社
一二〇九四	同	同	同
九四七六	全北鎭安郡程川面	十日	京城府冷洞 代表者 同橋北洞 金大泳 熙川府南洞 梁斗用
一二五三六	全北完州郡高山面 飛鳳面	十二月五日	金化郡通口面 代表者 京城府昌成洞 金永祚 同 忠信洞 尹福鎭 金化郡通口面 卓基京
七四一五	忠南公州郡灘川面	同六日	京城府三坂通 藤村忠助
一二一一六	慶北漆谷郡東明面 達城郡公山面	同	大邱府西千代田町
一〇二五四	忠南扶餘郡扶餘面	同七日	高陽郡漢芝面 代表者 南山町 李春命 鄭宗鴻 李基錫
八七六四	江原洪川郡洪川面 東面、化村面	同	京城府昌成洞 閔圭植
一二四四六	忠北忠州郡周德面	九日	高陽郡漢芝面 合資會社任宗莊

◇共同鑛業代表者改定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一二四五〇	忠南公州郡牛城面	十二月九日	代表者를吳龍善으로改定함

◇鑛業權消滅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一二三七八	咸南中山郡雲興面	十二月三日	廢業
一二二五一	京畿龍仁郡二東面	同四日	同
八九二三	平南大同郡斧山面 在京面	十二月五日	同
一一四三六	慶北奉化郡春陽面 鳳城面	同六日	同
九四〇七	平南平原郡東岩面 公德面	同	同
九六六六	忠南保寧郡熊川面	同七日	同
一〇〇九〇	平北寧邊郡梧里面	同	同
九一八六	咸北淸津府浦項洞富寧郡靑岩面	同	同

◇共同鑛業權者脫退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一〇八二二	江原春川郡南面、洪川郡西面	十二月六日	金麗善任意脫退함
一二四五〇	忠南公州郡牛城面 寺谷面	同	李鍾寬任意脫退함

大阪同胞村大火

祖孫이無慘燒死

火焰에싸여二層에서避치못해

家屋被害도全燒五戶

【大阪】지난이십이일 오전일곱시 십오분경 시내 동성구대금리정(東成區大今里町)에거주하는 현한택(玄翰澤)방에서 불이이러나서 동가와 린접한 김한거(金夏圭) 전중량작(田中良作) 하동룡(下東龍) 암미문평(岩尾文平)의 가옥 오호를 전소하고 여덟시이십분경에 겨우 소방대의 진력으로 진화하얏다는데 염회중 현씨모 백운정(白雲正)(六○)과 현씨의 둘재아들 병국(炳國)(三)의 이중에서 맹염에싸여 피할길이어서 백씨는 손자 병국를 끼어안고 참혹히도 타죽어 시체로발견되엇스며 현씨와 소방수한명도 전신에 대화상을입어 임개월치료를 하여야 되겟다는바 출화의 원인은 현씨 부인 김한계(金韓桂)(三二)가 로에 불을 옴기다가 겻헤잇는 세루로이드에 인화된것이라고하며 손해는 조사중이라한다

飮食店大打擊

釀造場의小賣로

【堤川】충북제천읍내 모모양조장에서는조선주를 오전、십전어치식소매함으로、우리는 버려막고살수가업스니 소매를 중지록 하여달라고 소관충주세무서에 탄원하엿다는바 내용은 당지 재천읍내 모양조장에서는탁주를 소매함으로 각음식점에서는 대타격을 밧게되여 이래서는 버려먹고 살수가업다하야 각음식영업자들은 이를 중지토록 교섭하여달라고 영업조합에와서 애원함으로 전긔영업조합에서는 소관충주세무서에 이를 교섭하엿슨바 세무서에서는 금후부터는 양조장에서 소매를못하도록 엄명하겟다고 하엿는데도 불구하고 이개월이 지난금일 까지도 여전 양조장에서소매를 함으로 일반음식점에서는또다시 영업조합에달려와서 소매중지를 애원함으로 영업조합에서는 림시총회를열고 대책을강구중이라고한다

叺織指導員脫線

가마치지안코색기꼰다고

良民에게無數暴行

【利川】지난이십오일 오후팔시경에 리천군백사면(利川郡栢沙面)서긔 리상우(李商愚)와 동면 산업지도원 송창의(宋昌義)와 동면 귀수 안대근(安大根)등 세사람은 동면 모전리(牟田里)삼백사십오번지에 사는 리문상(李文相)(三○)의집에 와서는 전부터 무슨 지도든지 잘 드러 순종한 사람으로 작년에도 자기 책임수량을 다짠사람이라한다 그런데 그때 방안에잇든 그안해유씨(劉氏)(三)는 입신삼개월무거운몸으로 이일에 골몰하엿다 피해자 리씨가 가마니짜는사람이 색기를 꼬고잇슴을 보고 이를 다짐히하엿다 리씨가 이를 ... [illegible] ... 피해자 리씨는 그날밤 부터 신고하다가 이를 ... [illegible]

貧民에白米配給

南勉勵會의美擧

【宜川】선천남교회 면려청년회(南敎會勉勵靑年會)에서는 지난 이십사일밤에 선천빈민층을 일일히 방문하면서 대미를 분배하야 엄동에떠는 빈민들에게 큰 위안을 주엇스며 또한병인들에게도 각각우유를 배급하엿다고한다

躍進하는商界

凋殘에서繁으로

目下逐日繁榮되여가는 竹山 注川南市場의 發展相은 不過十數年來에 一躍商業都市로서 別로 이 遜色이업는터이다 凋殘한過去에서 繁昌한今日이 잇기까지에는 첫재地利的 條件이 조흔 外에 市場發展을爲한 地方人士의 努力이 實로 不少하엿으며 一般營業者들이 特히 波利多賣를 主義綱領으로 삼어온까닭이라고한다

數千의私煙館業者

職業轉向을同盟

在哈同胞들의絕叫聲

【哈爾濱】국제도시합이빈에 우리동포는 급한템포로 증가되여 현재인구일만여에 그중팔할이상이 사연관업(私煙館業)을개시하야 민족적수치는 물론 개인적체면조차 일케되면서도 생에부대김(빈)을 살리기위하야 서는 가진포악과 모진학대를피하야오든 그들의장래는 과연우려되여잇스며 더욱이 치외법권철폐설이잇는 이때에 당지협조정면회(協助淸勉會)에서는 지난번 사연관업자 좌담회(座談會)를 개최하고 즉석에서 직업전향동맹(職業轉向同盟)을 결성하엿다함은 이미보도한바 잇거니와 지난십륙일 오후한시 삼십분에 재향동포의 사연관업자를 총 망라하야 전체대회를 동지상무회(商務會)에서김응두(金應斗)씨의 출석이원은 십여명래로 마굴(魔窟)에싸여 생을지속하여오던 사백여명과 방청자와 래빈을합하야 무려오백여명의 긴장된공긔속에 경과보고가 끗나매음 감상담에들어가서 자원출마 하는 수는 질(質)로나 (量)으로보아 꾸이업섯스나 시간이상을경과할수업서중단시키든중 장명순 (張明順女史)의창백한얼굴에는 재생의피빗치 떠돌앗스며 말끗마다 김운원한의 틈떵이가 일반관중에게 감회를북도다주어 대회석상은 백열화하야 목적을 관철하기에 실행운동을개시하기로 만세삼창으로 폐회하엿다는데 이번대회는 재합동포의일대사활문제인만큼 그실행운동성과는 각방면에서 다대한기대와 주목을 끌고잇스며 피선된위원은 다음과갓다고한다

委員長 金應斗 副委員長 李晧基 庶務部委員 朱大根 金鳳濟 計劃部委員 馬超海 崔泰山 趙崖垣 實行部委員 田解璧 田自益 南白山 宣傳部委員 朴陽來 李恭煥 全觀珠 孟斗茵 金水山 吳東實 吳康壽 張利寬 李世旭 金東海

朝鮮人親睦會서 陸上競技開催

【京都】재류동포의 유일한 공제긔관인 재경도 조선인친목회에서는 재류동포의 심신단련과 친목을 꾀하고저 오는 정월초삼일 오전열시부터 상경구 덕사(大德寺)부근에 잇는 자야중학(紫野中學)운동장에서 제일회 륙상경기대회를 개최한다는데 당일경기종목은 특히 흥미백떠센트의 종목뿐으로서 당지에서는 수삼년래 초유의 성사이니만치 벌서 인끼의 초점이되여잇다 당일의 회원은 물론 일반재류동포들은 만히 참가하야 유쾌한 하로를 가려보내기 바란다한다

一年間의小作爭議

一百三十餘件

【公州】지난 일월이후로 충남공주군내서 악덕지주의 무리한 소작료징수와 소작권박탈로 일어난 소작쟁의는 재판소와 군소작위원회에 맡겨이된 건수는 십이월말까지 일백삼십여건에해당한 건수가 삼분의이라한다

新年幸運券進呈

◇賞品 一等一人壁上時計一個 二等三人高級菓子鉢一個式 三等十人스크랩북一冊式

本支局에서는 本支局管內의 一月一日現在讀者에限하야 右記賞品附幸運券을進呈함

朝鮮日報社 江界支局